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輯

# 蔚山中壘古墳群

全 虎 兌  
金 榮 珉

1997

蔚山大學校博物館

景

# I. 간행사

이번에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一輯으로 蔚山 中垆古墳群 發掘報告書를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蔚山地域에는 先史時代 이래의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中垆古墳群이 위치한 熊村地域은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서 깊은 유적에 대한 면밀한 발굴은 대학 박물관이 해내어야 할 책무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遺物들은 본 대학 박물관에 잘 보전·전시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 박물관은 그 위치한 지역의 실정에 부합된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색 있는 유물들의 전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로 인하여 본 대학의 박물관은 명실공히 울산지역의 유일한 문화재 관련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中垆古墳群에 대한 學術報告書를 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술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부터 본 보고서의 刊行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호태 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1997년 12월

울산대학교 총장 구 분 호

##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방위표시는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보고서의 遺物記述中에 말미에 출토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유물들은 출토위치가 불명한 것, 즉 교란된 것임을 의미한다.
3. 본 보고서의 遺構記述中에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라는 용어는 기존의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된 『堂甘洞古墳群』보고서의 유구축조용어상의 '縱平積', '橫平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石材의 놓인방향과 墓壙線과의 관계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다.

# 目 次

I. 머리말	7
II. 遺蹟의 立地와 現況	11
III. 調査內容	15
1. 1號墳	15
2. 2號墳	16
3. 3號墳	16
4. 4號墳	22
5. 5號墳	29
6. 6號墳	37
7. 7號墳	38
8. 8號墳	42
9. 9號墳	45
IV. 考察	54
1. 編年과 年代	54
2. 遺蹟의 性格	56
V. 맺음말	63

# 圖面目次

圖面 1. 遺蹟 位置圖(1/25,000) -----	8
圖面 2. 遺蹟 位置圖(1/5,000) -----	12
圖面 3. 遺構配置圖(1/200) -----	14
圖面 4. 1, 2號墳 遺構 -----	15
圖面 5. 3號墳 遺構 -----	17
圖面 6. 3號墳 遺物 -----	18
圖面 7. 3號墳 遺物 -----	21
圖面 8. 4號墳 遺構 -----	23
圖面 9. 4號墳 遺物 -----	24
圖面 10. 4號墳 遺物 -----	26
圖面 11. 4號墳 遺物 -----	28
圖面 12. 5號墳 遺構 -----	30
圖面 13. 5號墳 遺物 -----	32
圖面 14. 5號墳 遺物 -----	34
圖面 15. 5號墳 遺物 -----	35
圖面 16. 6號墳 遺構斗 遺物 -----	37
圖面 17. 7號墳 遺構 -----	38
圖面 18. 7號墳 遺物 -----	40
圖面 19. 7號墳 遺物 -----	41
圖面 20. 8號墳 遺構 -----	42
圖面 21. 8號墳 遺物 -----	43
圖面 22. 8號墳 遺物 -----	44
圖面 23. 9號墳 遺構 -----	45
圖面 24. 9號墳 遺物 -----	47
圖面 25. 9號墳 遺物 -----	49
圖面 26. 9號墳 遺物 -----	51
圖面 27. 9號墳 遺物 -----	53

## 圖版目次

圖版 1. 下垆遺蹟斗 中垆古墳群 全景(原色) -----	67
圖版 2. 遺構露出모습(原色) -----	68
圖版 3. 出土土器類(原色) -----	69
圖版 4. 遺蹟 遠景 -----	70
圖版 5. 遺蹟近景 및 1, 2號墳 -----	71
圖版 6. 3號墳 -----	72
圖版 7. 4號墳 -----	73
圖版 8. 5, 6號墳 -----	74
圖版 9. 7號墳 -----	75
圖版 10. 8號墳 -----	76
圖版 11. 9號墳 -----	77
圖版 12. 3號墳 遺物 -----	78
圖版 13. 3號墳斗 4號墳 遺物 -----	79
圖版 14. 4號墳 遺物 -----	80
圖版 15. 4號墳 遺物 -----	81
圖版 16. 4號墳斗 5號墳 遺物 -----	82
圖版 17. 5號墳 遺物 -----	83
圖版 18. 5號墳 遺物 -----	84
圖版 19. 5號墳斗 6號墳 및 7號墳 遺物 -----	85
圖版 20. 7號墳 遺物 -----	86
圖版 21. 8號墳 遺物 -----	87
圖版 22. 9號墳 遺物 -----	88
圖版 23. 9號墳 遺物 -----	89
圖版 24. 9號墳 遺物 -----	90
圖版 25. 9號墳 遺物 -----	91
圖版 26. 9號墳 遺物 -----	92

## I. 머리말

中垆古墳群은 蔚山市 蔚州郡 熊村面 大垆里 일대에 위치하는 하대유적과 인접하고 있으며 5세기와 6세기에 조성된 墳墓遺蹟이다. 지금까지 中垆古墳群은 지표조사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유물이 채집되기는 하였으나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특히 인접하고 있는 下垆遺蹟의 중요성 때문에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중대고분군은 그 실체 자체마저 간과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대유적의 학술적 중요성은 삼한시기 연구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인 ‘瓦質土器論’의 표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하대유적에 대한 연구의 주안점은 釜山大學校 博物館에 의하여 2차에 걸쳐 조사된 하대 ‘가’ 지구에서 북쪽으로 楮里마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기적인 변화과정에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학계의 관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대유적의 주변은 이미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하대유적 이외에도 인근하고 있는 靑銅器時代의 採石遺蹟과 삼국시대의 생활유적 등이 알려지고 있다<sup>2)</sup>.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그 성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대유적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일대에 대한 정보는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하대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는데는 자료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하대유적을 제외한 이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대고분군과 같은 유적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존대책도 강구되지 않아 아무런 제약도 없이 토목공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중대고분군은 1996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586-1번지 일대 약 300평에 대한 생활근린시설이 들어서면서 遺構의 일부가 절토단면에 노출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출된 단면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豎穴式 石槨墓와 그 내부에서 토기편들이

1) 申敬澈,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12,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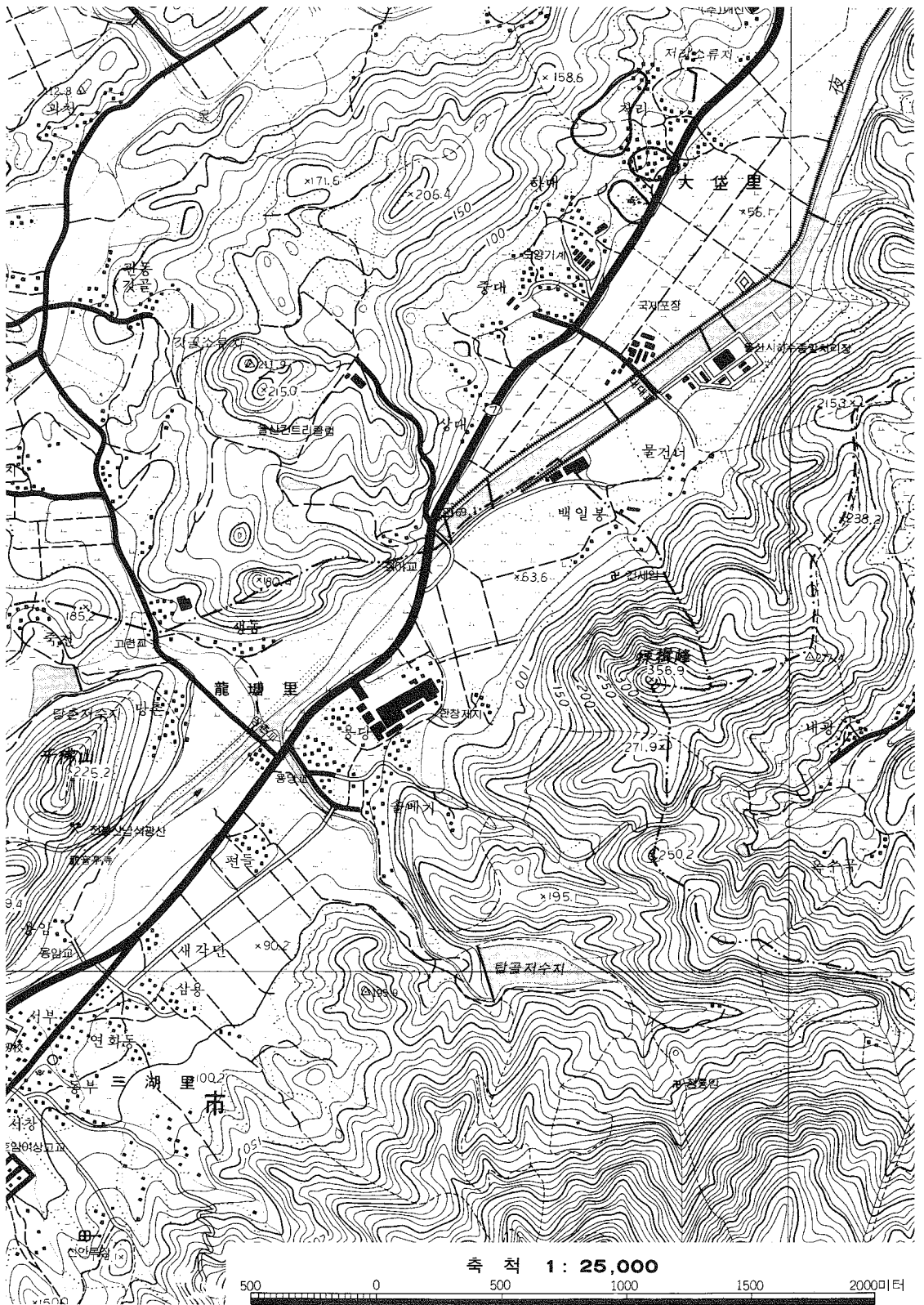
——, 「新羅土器 發生에 대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12, (財)韓日文化交流基金, 1984.

崔鍾圭, 「瓦質土器의 檢討と意義」, 『古代を考ふる』, 1983.

奎玉年, 『嶺南地域에 있어서 後期瓦質土器의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金榮珉, 「蔚山下垆 收拾鐵器의 檢討」, 『伽耶考古學論叢』II, 伽耶文化研究所 編, 1997.

2) 釜山大學校 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遺蹟』, 1995.



圖面. 1 遺蹟 位置圖 <1/25,000>



채집됨으로서, 현재 감나무농장으로 경작되고 있는 이 일대에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상남도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즉각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자에 대하여 이 지역에 대한 공사중지를 통보하였으며 우리 박물관에 수습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사 허가된 부지의 유구들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때문에 단지 토층의 단면에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던 9기의 석곽묘를 수습하는 한정된 조사만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6년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러나 생활근린시설로 허가된 300평의 부지는 이미 경사면을 따라 최대 3m까지 토사가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석곽묘가 파괴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번의 수습조사에서는 파괴된 상태로 토층의 단면에 걸려 남아 있는 豎穴式 石槨墓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외에 공사의 진행에 따라 파손의 가능성이 있는 유구들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때문에 전체적의 유구의 분포와 유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의 조사는 절토된 단면에 노출된 유구들의 수습이라는 공간적 한정성 때문에 극히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조사된 유구는 총 9기의 수혈식 석곽묘로 유구의 번호는 편의상 조사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하였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발 굴 단 장 : 奎虎兌(蔚山大學校 博物館長)

조 사 원 : 金榮珉(蔚山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員)

李慶仁(蔚山大學校 博物館 助教)

조사 보조원 : 裴順喜(蔚山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金賢哲(蔚山大學校 史學科4년)외 다수

이외에 이번 조사과정에 단기간이지만 김도현, 배진성(부산대학교 고고학과 4년)이 현장조사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현장을 방문해서 유적과 유구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奎玉年선생님과 土器遺物의 燒成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와세다대학의 佐佐木幹雄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시행자인 김반석씨와 평소부터 울산의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장조사과정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하대

마을의 김석암씨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출토유물의 정리는 박물관 연구원들과 김현철, 남연의, 허선희, 윤은희, 신준섭 등이 주로 하였다. 유물의 실측과 제도는 조사원들이 분담하여 실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김영민과 천선행이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사진의 촬영과 인화, 편집은 배순희가 전적으로 수고하였다. 본문의 기술은 김영민과 천선행이 주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전호태가 수정·가필하였다.

## II. 遺蹟의 位置와 立地

中垆古墳群은 蔚山市 蔚州郡 熊村面 大垆里 586-1番地 일대로 기존에 학계에 널리 알려진 울산 下垆遺蹟에 인근하고 있는 5, 6세기대의 유적이다<sup>3)</sup>. 遺蹟은 釜山-蔚山간의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감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그 면적은 대략 3,000여 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대유적은 울산칸트리클럽에서 북으로 뻗어 있는 산 구릉의 해발 60~100m의 동쪽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울산칸트리클럽의 입구에서 국도를 따라 약 1km정도 울산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볼 때 서쪽에 있는 구릉의 사면이 전체적으로 유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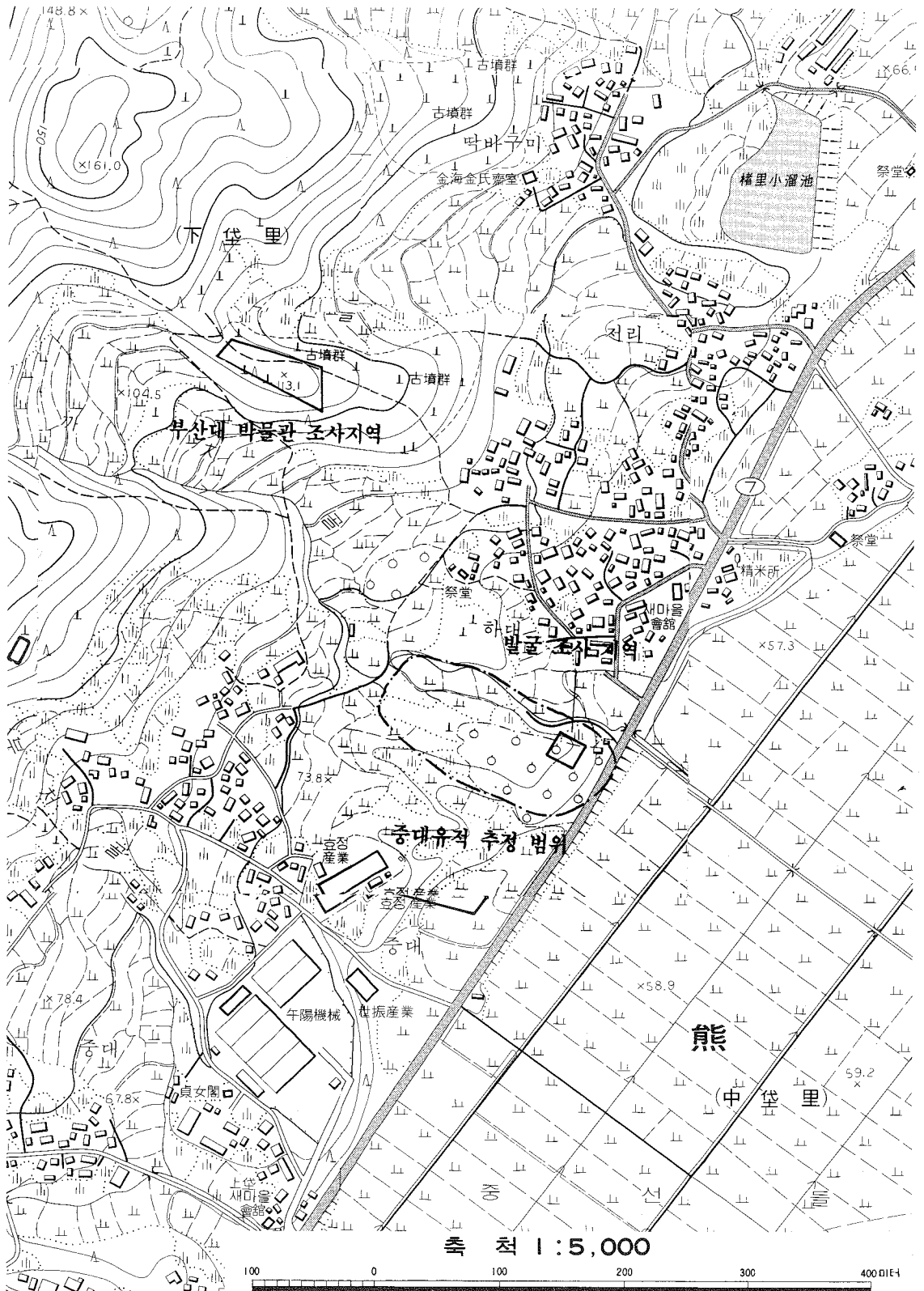
이번에 조사된 중대고분군은 7번 국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릉의 일부분이 국도에 의해 잘려 나간 점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범위는 7번 국도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적은 편평한 대지상의 구릉으로 좌우에 조그만한 계곡에 의하여 경계가 구별되어져 있다. 북서쪽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하대와 중대를 잇는 도로변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중대고분군은 釜山 大學校 博物館이 조사했던 하대 '가' 지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하대유적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하대 '가' 지구에서 6세기대의 대형 봉토분이 확인되는 楮里古墳群까지로 이어지는 시기적 연속선상에 있는 유적의 범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일대의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시기적 연속선상의 유구들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의 채석유적과 삼국시대의 생활유적 및 관련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일대에는 三國時代뿐만 아니라 先史時代의 유적들까지 폭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환경을 살펴보면<sup>4)</sup>, 먼저 구릉의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 回夜江과 曲泉川의 존재가 이 지역일대에 이와 같은 대단위의 유적이 입지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회야강과 곡천천이 만나면서 상류지역은 流速이 급속히 느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상류지역으로부터 이동하여온 다량의 토사들이 하대유적 주변에 퇴적됨으로써

3) 下垆遺蹟의 범위가 대단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관계로 현지명을 사용하여 유적명을 표기하기로 한다. 특히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된 하대 '가' 지구의 경우 三韓時代의 유적이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 中垆古墳群의 삼국시대 분묘와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으므로 양자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양 유적의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4) 이 일대에 이와 같은 대단위의 문화유적이 입지 할 수 있었던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울산 검단리마을 유적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註2)의 前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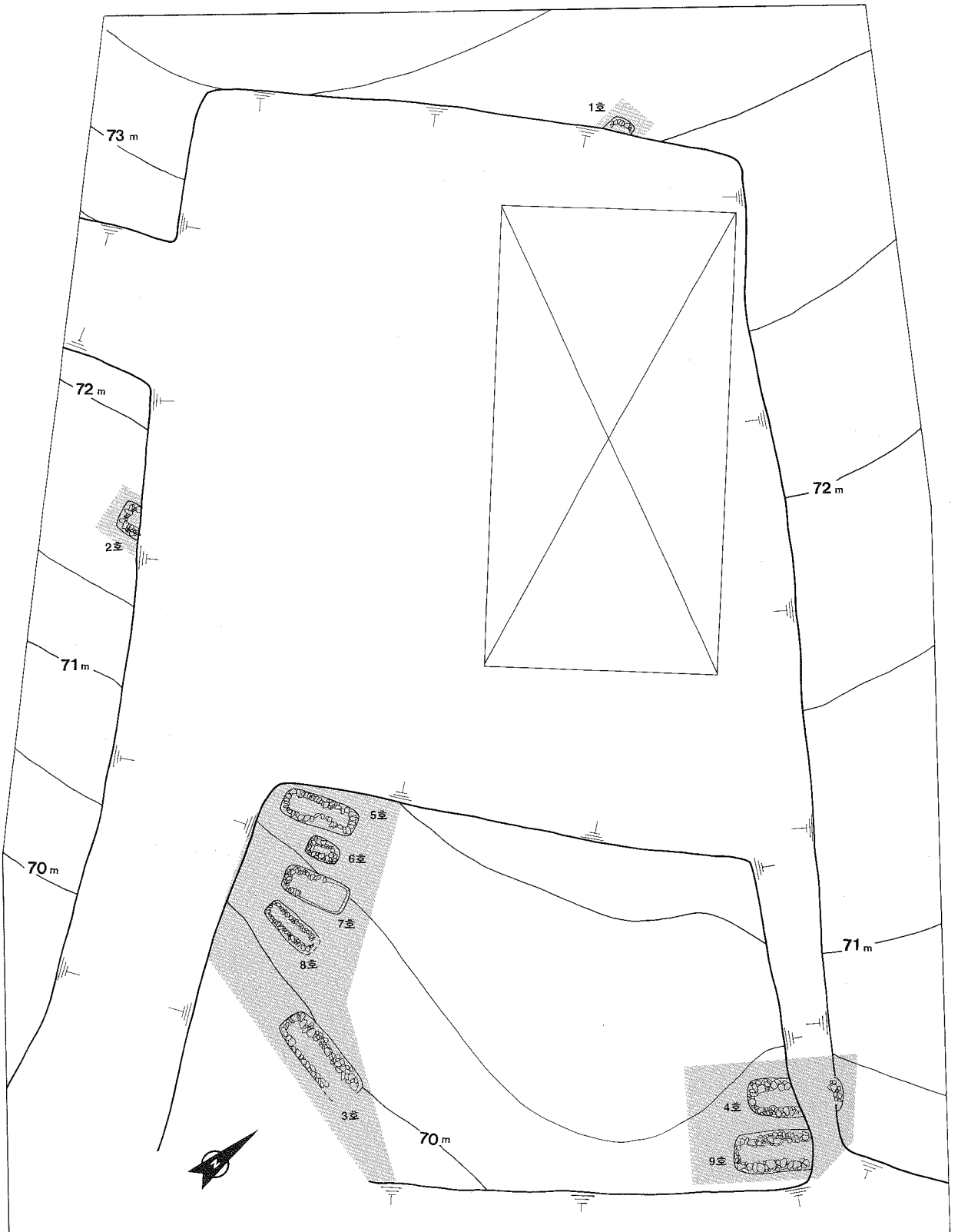
圖面. 2 遺蹟 位置圖 <1/5,000>

넓은 沖積平野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넓은 평야는 고대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하천을 끼고 있어 풍부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대유적이 위치한 이 지역일대는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농경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하겠다. 때문에 이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의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국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당시에 이 지역은 慶州에서 釜山地域으로 진입하는 3개의 교통로<sup>5)</sup> 중 하나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경제적 諸要件들은 이 지역에 이른 시기부터 대단위의 유적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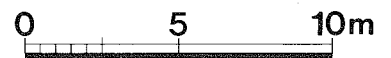
---

5) 이희준은 신라의 경제교역망에 대한 지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부산-경주간의 교통로로서 부산-양산-경주, 부산-울산-경주, 부산에서 동해안을 거치는 해안루트를 제시하고 있다.

李熙濬, 「신라의 성립과 성장에 대한 고찰 -고고·역사·지리적 접근-」,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韓國考古學會, 1996.



圖面. 3 遺構配置圖 <1/250>



### Ⅲ. 調査内容

#### 1. 1號墳

##### 1) 遺構(圖面. 4, 圖版. 5-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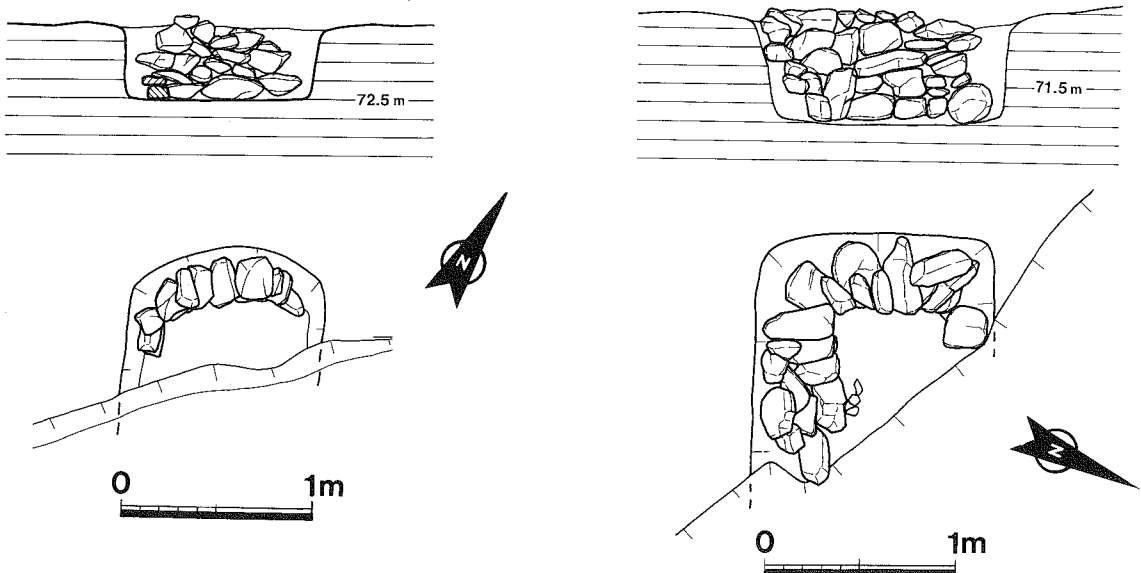
1號墳은 해발 72.5m 선상에 위치한 竪穴式 石槨墓로 금번 발굴조사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발굴 당시 切土作業에 의해 거의 파괴되고 北短壁만 3~4段 정도 남아 있었다. 잔존한 遺構의 規格은 잔존길이 45cm, 추정너비 90cm, 최대깊이 40cm이다.

정확한 장축 방향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短壁의 壁石이 놓인 상태로 보아 N42°W로 추정된다.

본 유구는 다른 竪穴式 石槨墓과 비교한다면 長軸방향이 약간 다른 느낌이 들지만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의 경사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유구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즉 본 1號墳도 전체적으로 等高線을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遺構는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하여 築造方法과 관련된 構造를 확인하기 어렵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북단벽의 축조방법을 볼 때 유구의 最下段石인 1段은 30~40 Cm 정도의 割石으로 세로쌓기하여 평면을 구획하고 2단부터 가로쌓기하여 쌓고 있다. 短壁과 長壁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은 동시에 축조하였으며 단벽은 弧狀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床面에는 屍床石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바닥면에 점성이 강한 붉은 진흙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시상석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圖面. 4 1號墳(左), 2號墳(右) 遺構 <1/40>

## 2. 2號墳

### 1) 遺構(圖面. 4, 圖版. 5-4, 5)

발굴범위 중 서쪽 끝의 海拔 71.5~72m 사이에 等高線과 나란하게 축조된 豎穴式 石槨墓이다. 1號墳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切土작업에 의해 파괴되어 西短壁 4~5段 정도와 양 모서리 부분이 약간 남아 있다. 遺構의 規格은 잔존길이 120cm, 너비 105cm, 최대깊이 60cm이다. 현 상태로 보아 長軸방향은 N48°E이다.

築造方法에서 볼 때 1號墳의 단벽이 등글게 처리되어 있음에 비해 2號墳의 경우는 短壁이 長壁과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구의 축조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號墳의 남아 있는 단벽과 비교 할 때 2號墳의 남아 있는 단벽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측벽을 쌓아가는 시작부분과 관계되는 것이다. 2號墳의 단벽 부분은 측벽의 축조에서 시작점에 해당하고 1號墳의 단벽부분은 축조과정의 중간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횡구식 석실의 평면구조와 유사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횡구식 석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발굴 당시 屍床石은 缺失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나, 遺構가 破壞되면서 나온 10cm정도의 割石으로 보아 屍床石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벽에 잇대어 유물이 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시상석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3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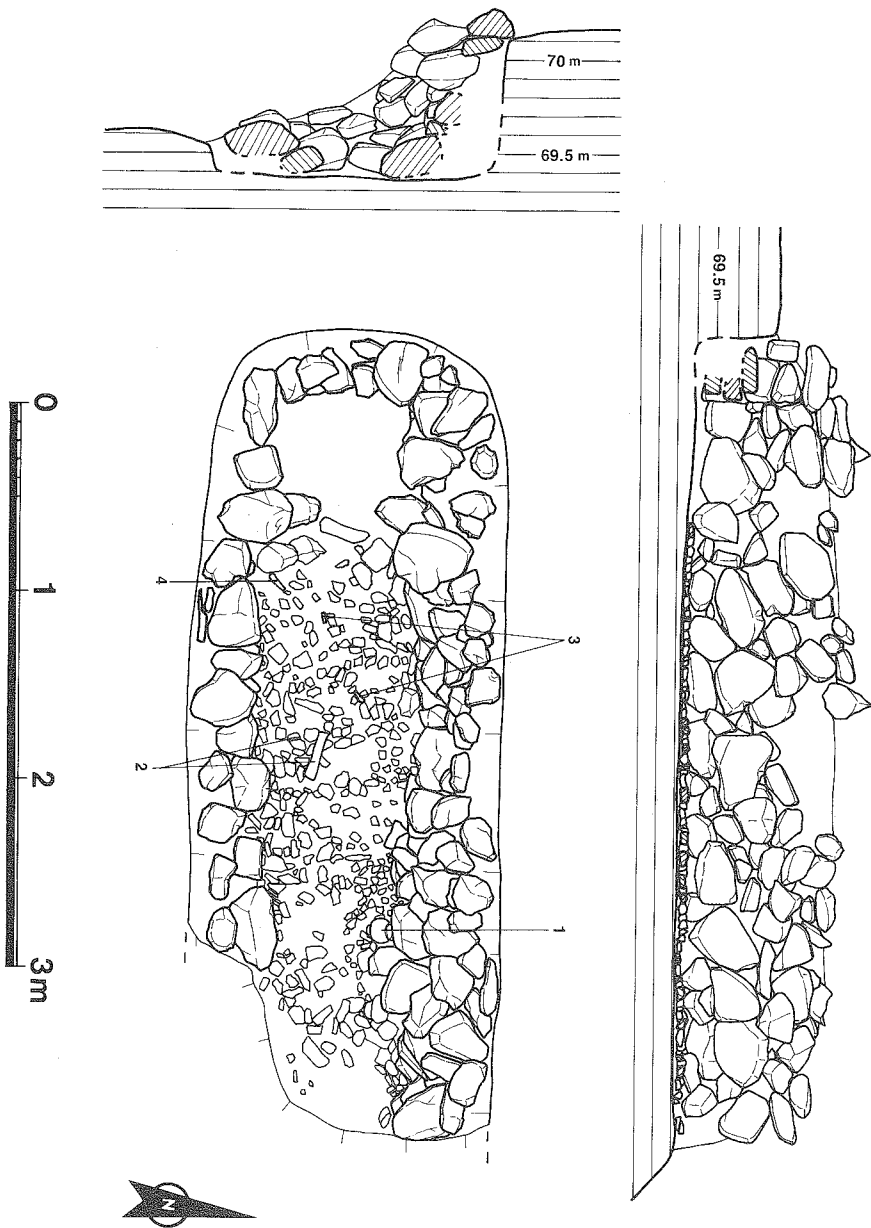
### 1) 遺構(圖面. 5, 圖版. 6)

해발 69.5~70m 사이에 위치하는 豎穴式 石槨墓이다. 북쪽의 長壁을 제외하고는 측벽들이 대부분 1~2段 정도만 남아있다. 遺構의 남쪽에 치우쳐서 遺構의 길이방향으로 小路가 지나가면서 유구의 벽석이 대부분 流失되었으며, 특히 동쪽의 단벽은 완전히 결실되어 있었다. 壁石이 잘 남아 있는 북쪽의 長壁은 5~6段 정도가 남아 있다. 遺構의 規格은 잔존길이가 430cm, 너비가 150cm, 잔존길이가 80cm이다. 遺構의 長軸方向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N87°E이다.

本 遺構의 구조는 被葬者가 안치된 主槨과 遺物副葬을 위한 공간인 副葬槨으로 나누어지는데 경계부분에는 20~30cm정도의 割石으로 兩空間을 分割하고 있다. 主槨의 바닥은 1차적으로 전면에 적갈색의 점성이 강한 진흙을 깔고 그 위에 10cm내외의 활석을 한벌 깔아 시상바닥으로 사용하고 있다.

副葬槨은 완전히 盜掘되었으며 臺附長頸壺의 臺脚片 일부만이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바닥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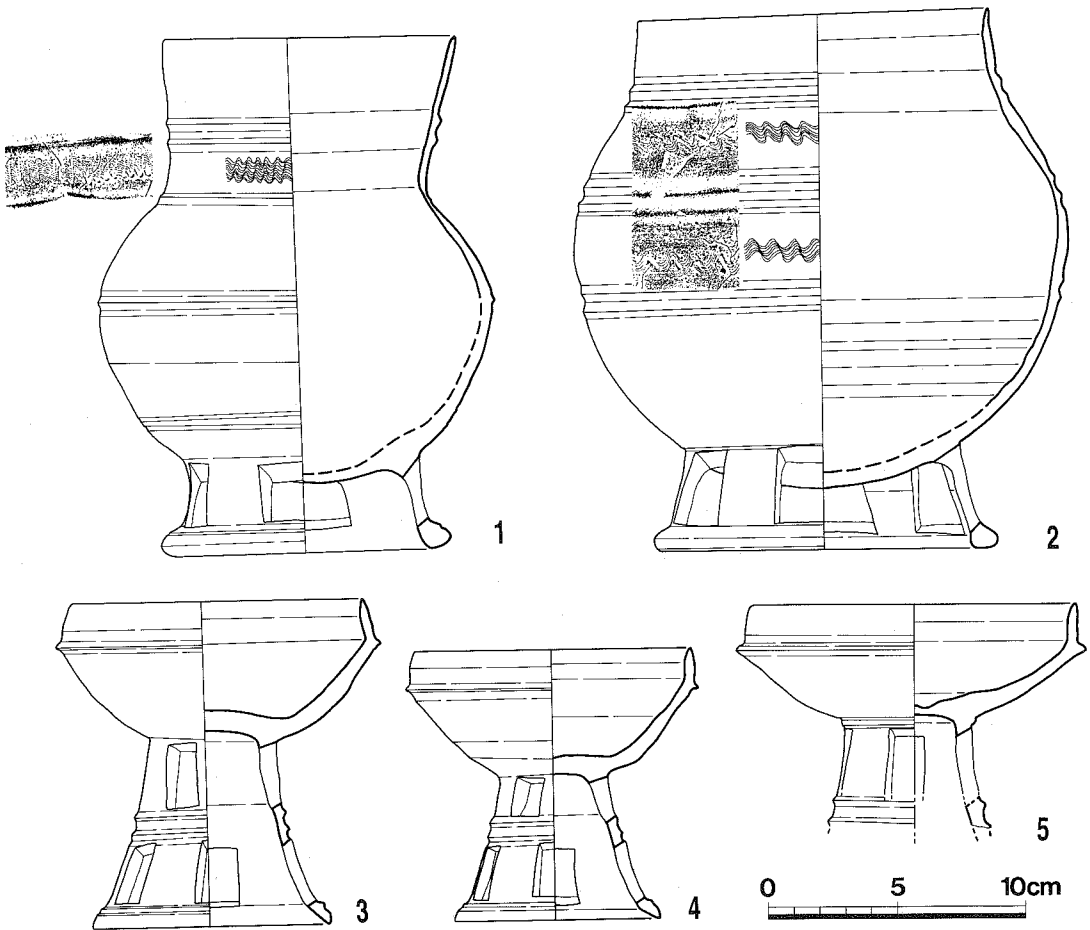
圖面. 5 3號墳 遺構 <1/40>

축벽의 築造方法은 뚜렷한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副葬槨의 경우는 가로쌓기로 平面을 區劃하고 2段부터는 규칙성은 보이지 않지만 돌들을 맞대어 쌓았다. 그러나 主槨의 壁石은 축조방법이 조잡하여 土壓에 의하여 遺構의 내부로 축벽들이 밀려 들어와 있었다. 특히 축벽들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쌓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主副槨의 축조방법으로 보아 주곽과 부장곽을 달리 쌓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축벽을 조

잡하게 쌓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主槨의 遺物은 北長壁의 측벽에 연하여 臺附長頸壺 1점이 검출되었으며 小形軟質甕이 완전히 파손되어 흔적만 남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鐵器類가 屍床石 위에서 檢出되었는데 심하게 腐蝕되어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복원해 본 결과, 刀子和 小形 有刺利器, 小形 鐵 銚, 鐵 鋌 등으로 확인되었다.

副葬槨은 완전히 盜掘되어 遺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나 土器片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복원 결과, 臺附長頸壺와 高杯들이었다.



圖面. 6 3號墳 出土遺物(1, 교란: 2~5) <1/3>

## 2) 遺物

### a. 土器

圖面. 6-1(圖版. 12-1)은 陶質製의 臺附長頸壺로 燒成은 보통이며, 口緣部 일부가 파손되었다. 胎土에 長石, 石英이 일부 混入되어 있으며, 色調는 내외면 회청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土器表面의 整面技法은 전체를 회전물손질하고 있는데, 胴最大徑部分에 橫으로 돌대 1조가 돌려져 있다. 臺脚은 1段으로 橫長方形의 透窓이 5개 配置되어 있다. 頸部에 9齒具의 集線 波狀文이 왼쪽으로 施文되어 있으며, 口頸部和 胴體 上部에 自然油가 일부 산화박리 되어 있다. 구연부는 일부 일그러져 있다. 規格은 높이 20.5cm, 口徑 11.4cm, 底徑 11.2cm, 胴最大徑 15.5cm이다. 出土位置 : 1

圖面. 6-2, 7-1(圖版. 12-2, 12-3)은 陶質製의 臺附壺이다. 圖面. 6-2는 燒成이 보통이며, 태토에는 長石, 石英 등이 混入되어 있다. 表面의 色調는 灰青色이며, 속심 灰色調이다. 土器의 表面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고 있다. 口緣部는 짧게 內頃하며, 胴上部에 2組의 돌대를 3段으로 區劃하여 上, 下 2段에 6齒具로 集線 波狀文을 반시계방향으로 施文하고 있다. 臺脚은 1段으로 6개의 透窓을 配置하고 있다. 副葬槨의 攪亂된 部分에서 收拾되었다. 規格은 높이 12.8cm, 口徑 13.8cm, 底徑 13.5cm, 胴最大徑 19.4cm이다.

圖面. 7-1의 臺附壺는 燒成이 良好한 편이며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들이 약간 混入되어 있다. 色調는 內外面이 灰青色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口緣部는 완전히 缺失되어 정확한 器形을 알 수 없다. 臺脚 일부와 동체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상태는 극히 불량한 편이다. 臺脚은 1단으로 長方形 透窓 8개가 配置되어 있다. 胴上部에 1조의 돌대를 3단으로 돌려서 上, 下 2段으로 나누고, 上段에는 23組의 縱平行集線文을, 下段에는 17組의 半圓 集線文을 서로 交叉하여 施文하였다. 副葬槨의 攪亂된 位置에서 수습되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整面하였으며, 胴上部에 自然油(암록색)가 부착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24.7cm, 底徑 23cm, 胴最大徑 35.6cm이다.

圖面. 6-3, 4, 5, 圖面. 7-2, 3(圖版. 12-6, 4, 5, 圖版. 13-2, 1)은 陶質製의 高杯인데 모두 5점이 파손된 상태로 副葬槨의 攪亂된 上部에서 수습되었다. 圖面. 7-3은 다른 4점과 구별되는데, 杯身部가 넓고 杯身 外面에 2단의 點列文이 施文되어 있다. 5점 모두 교란된 部分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3號墳의 副葬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器形狀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圖面. 7-3을 제외한 4점은 3號墳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遺物의 세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높이	口徑	底徑		
6-3	12-6	13.3	11.6	9.4	陶質. 燒成 良好. 구연과 臺脚이 일부 파손. 長石, 石英 미량 혼입.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整面.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이 5개씩. 구연과 臺脚말단에 자연유 일부 박리.	·
6-5	12-5	(9.5)	12.8	·	陶質. 燒成 良好. 臺脚 일부 파손. 長石, 石英 미량 混入. 內外面 암회색, 속심 자색. 杯身 외면 하부와 臺脚 상부에 회전목리흔이 약간 잔존,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4개씩. 구연부에 자연유 剝離.	·
6-4	12-4	10.8	11.1	8.2	陶質. 燒成 良好. 口緣과 臺脚이 1/2정도 결실. 長石, 石粒 미량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장방형 透窓 5개씩.	·
7-2	13-2	(6.5)	12.2	·	陶質. 瓦質 燒成. 臺脚이 완전히 파손되고 口緣部 1/3 정도 결실. 長石, 石英 미량 혼입. 內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透窓은 상단 4개.	·
7-3	13-1	(6)	17	·	陶質. 燒成 良好. 口緣部 1/2정도 결실되고 臺脚 결실.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杯身 외면 회전목리흔 나머지는 회전물손질 정면. 透窓은 상단 4개. 杯身に 2조의 침선으로 구획을 나누어 上·下 9치구로 점열문을 시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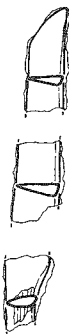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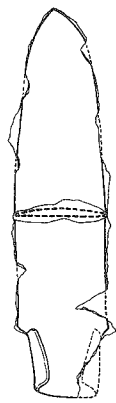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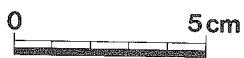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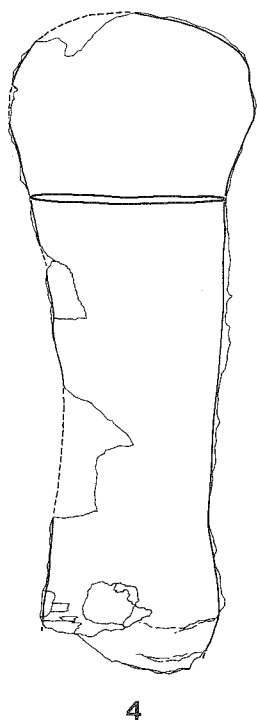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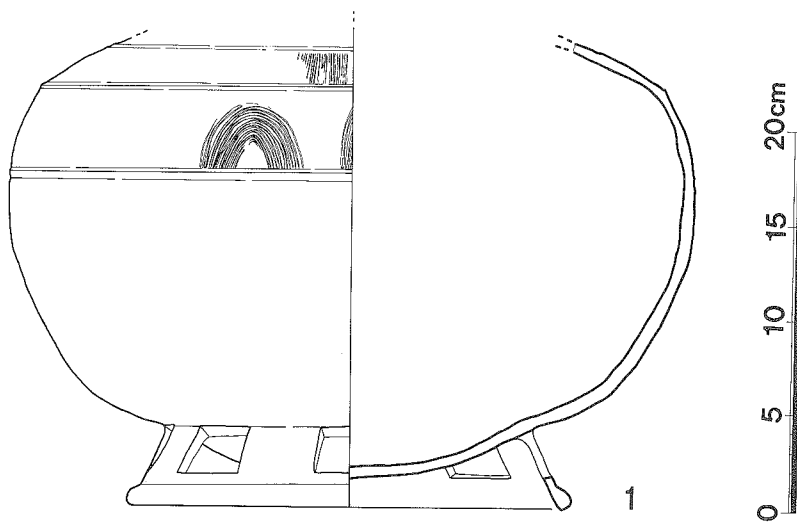
## b. 鐵器

鐵器類들은 屍床石의 上部에서 극심하게 부식되어 조사 당시에는 전혀 형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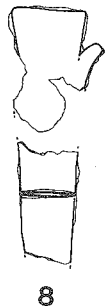
圖面. 7-4(圖版. 13-3)는 鐵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쪽 끝부분이 결실되었으며, 斷面은 板狀으로 상당히 얇은 편이다. 表面에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유기질과 초분류가 銹着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길이 17.5cm, 幅 6.5cm, 두께 0.2cm, 重量 88.5g이다. 出土位置 : 3

圖面. 7-5(圖版. 13-4)은 小形의 板狀鐵鉞이다. 身部の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나 거의 板狀에 가깝다. 鑿部는 1/3정도 파손되었으며 製作方法은 板狀의 鐵器를 裁斷하여 鑿部부분을 말아 접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武器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서부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미니어처와 관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規格은 길이 10.2cm, 幅 2.5cm, 厚 0.2cm, 重量 28.3g이다. 出土位置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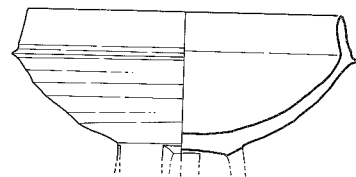
圖面. 7-6(圖版. 13-7)은 不明鐵器로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알 수 없다. 단면은 판상이다.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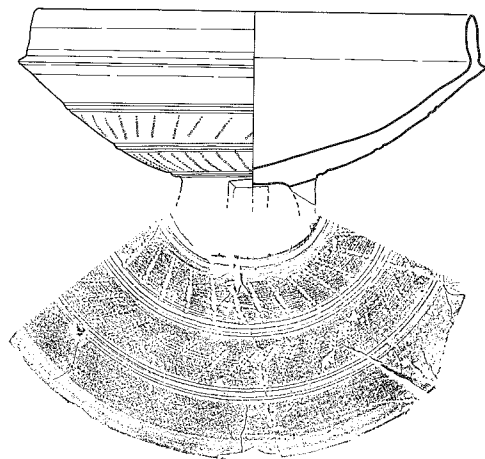
7



8



2



3



圖面. 7 3號墳 出土遺物(4~8, 교란: 1~3) <1:1/4, 2·3: 1/3, 4~8:1/2>

실된 부분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기형은 알 수 없지만 有刺利器片으로 보인다. 規格은 잔존 길이 4.2cm, 幅 2.5cm, 두께 0.2cm, 重量 5.3g이다. 出土位置 : 4

圖面. 7-7(圖版. 13-5)는 鐵製 刀子로 3조각으로 분리되어 원형과악이 곤란하다. 身部の 斷面은 이등변삼각형이며, 柄部에는 목질이 남아있다. 規格은 잔존길이 6.7cm, 幅 1.3cm, 두께 0.3cm, 重量 6.1g이다. 出土位置 : 2

圖面. 7-8(圖版. 13-6)은 有刺利器의 片이다. 역시 小形化한 형태로 腐蝕이 극심하여 대부분이 결실되고 일부분만 잔존한다.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나 거의 판상에 가깝다. 역시 서부경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미니어처로 판단된다. 規格은 잔존길이 6.5cm, 幅 2cm, 두께 0.3cm, 重量 9.4g이다. 出土位置 : 4

#### 4. 4號墳

##### 1) 遺構(圖面. 8, 圖版. 7)

4號墳은 발굴범위의 남동쪽 끝 해발 70m선에 位置하는 豎穴式 石槨墓이다. 本 遺構는 배수로 작업에 의해 遺構의 兩長壁이 130cm정도 幅으로 절단되었다. 長壁은 6단, 短壁은 7단정도 비교적 原形을 유지한 채로 남아있다. 遺構의 規格은 길이 400cm, 너비 160cm, 잔존깊이 95cm이다. 長軸方向은 N16°E로 等高線 방향과 平行하다.

축조방법은 2단까지는 30~40cm정도의 割石을 크기에 따라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하였다. 대체로 1단은 가장 큰돌을 사용하고 2단부터는 다소 작은 돌을 무작위로 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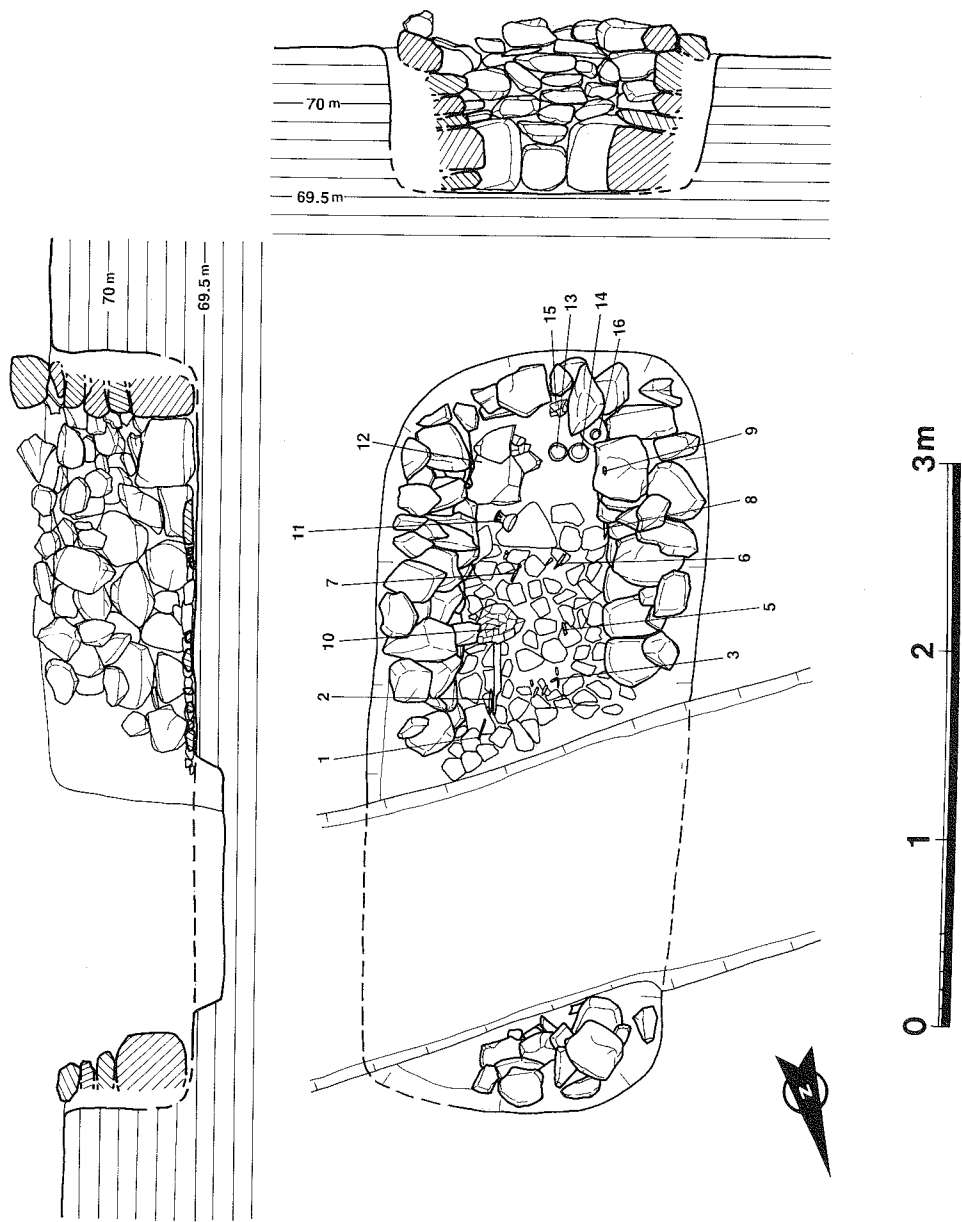
遺構의 구조는 長方形으로 크게 被葬者를 위한 屍床부분과 遺物副葬을 위한 副葬空間으로 나누어진다.

바닥은 15cm전후의 割石을 전면에 깔고 있으나 遺物을 副葬하기 위한 공간에는 아무런 施設도 하지 않았으며, 屍床石 아래에는 적갈색의 점성이 강한 진흙을 한벌 깔았다.

遺物은 서쪽 短壁에 沿하여 바닥면에 아무런 施設을 하지 않은 공간에 밀집하여 副葬하고 있는데 盜掘이 심하여 남아있는 유물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검출되었다.

遺物의 구성을 보면 토기류는 大壺, 軟質甕, 短頸壺, 臺附碗, 臺附長頸壺 등이 있으며, 鐵器類는 鐵鍬, 鐵刀子가 군데군데 흩어진 채로 확인되었고, 大刀가 남쪽 장벽쪽으로 치우쳐서 손잡이가 동쪽을 향한 채로 出土되었다. 大刀의 놓인 방향으로 보아 被葬者의 頭向은 동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號墳의 남쪽으로 50cm정도 떨어져 9號墳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양유구의 被葬者는 아마도 친연관계를 가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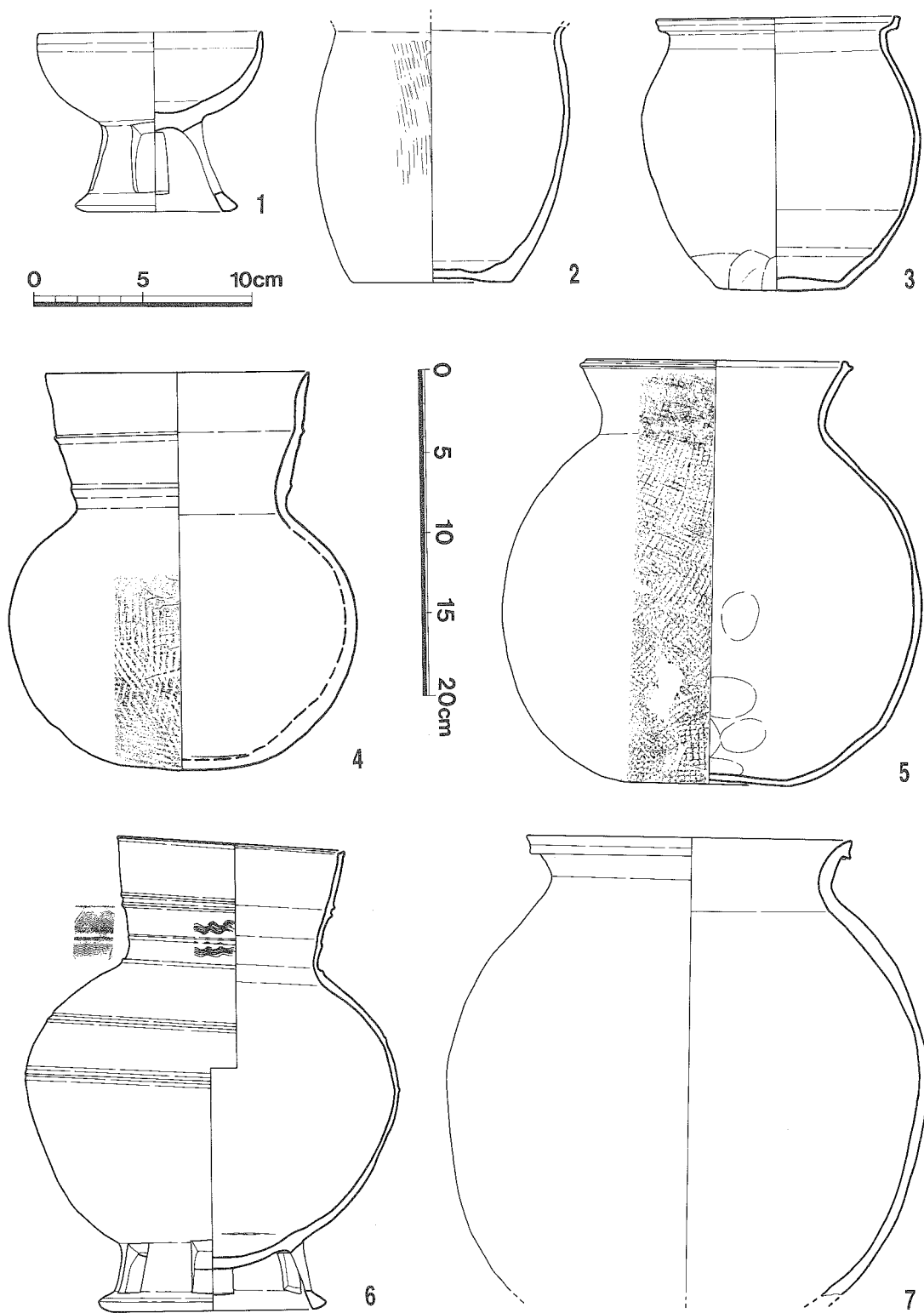


圖面. 8 4號墳 遺構 <1/40>

2) 遺物

a. 土器

圖面. 9-1(圖版. 13-8)은 陶質製의 臺附碗이며 燒成은 보통이다. 完形이며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소량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 모두 회색이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臺脚은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口緣과 臺脚末端에 自然油가 산화박리 되어 있다. 臺脚



圖面. 9 4號墳 出土遺物(1~7) <1~4·7:1/3, 5·6·8: 1/4>



과 杯身部の 接合부분에 균열이 심한 편이다. 規格은 높이 8.4cm, 口徑 10.3cm, 低徑 6.4cm이다. 出土位置 : 11

圖面. 9-2, 3(圖版. 14-2, 3)은 軟質製의 甕으로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2는 口緣部가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胴體部는 2/3정도가 결실되었다. 胎土에 長石, 石英 및 雲母片이 다량으로 混入되어 있다. 色調는 内外面 모두 황색이다. 外面은 전체적으로 縱方向의 平行打捺이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規格은 잔존높이 12.1cm, 殘存口徑 11.0 低徑 17.2cm이다. 出土位置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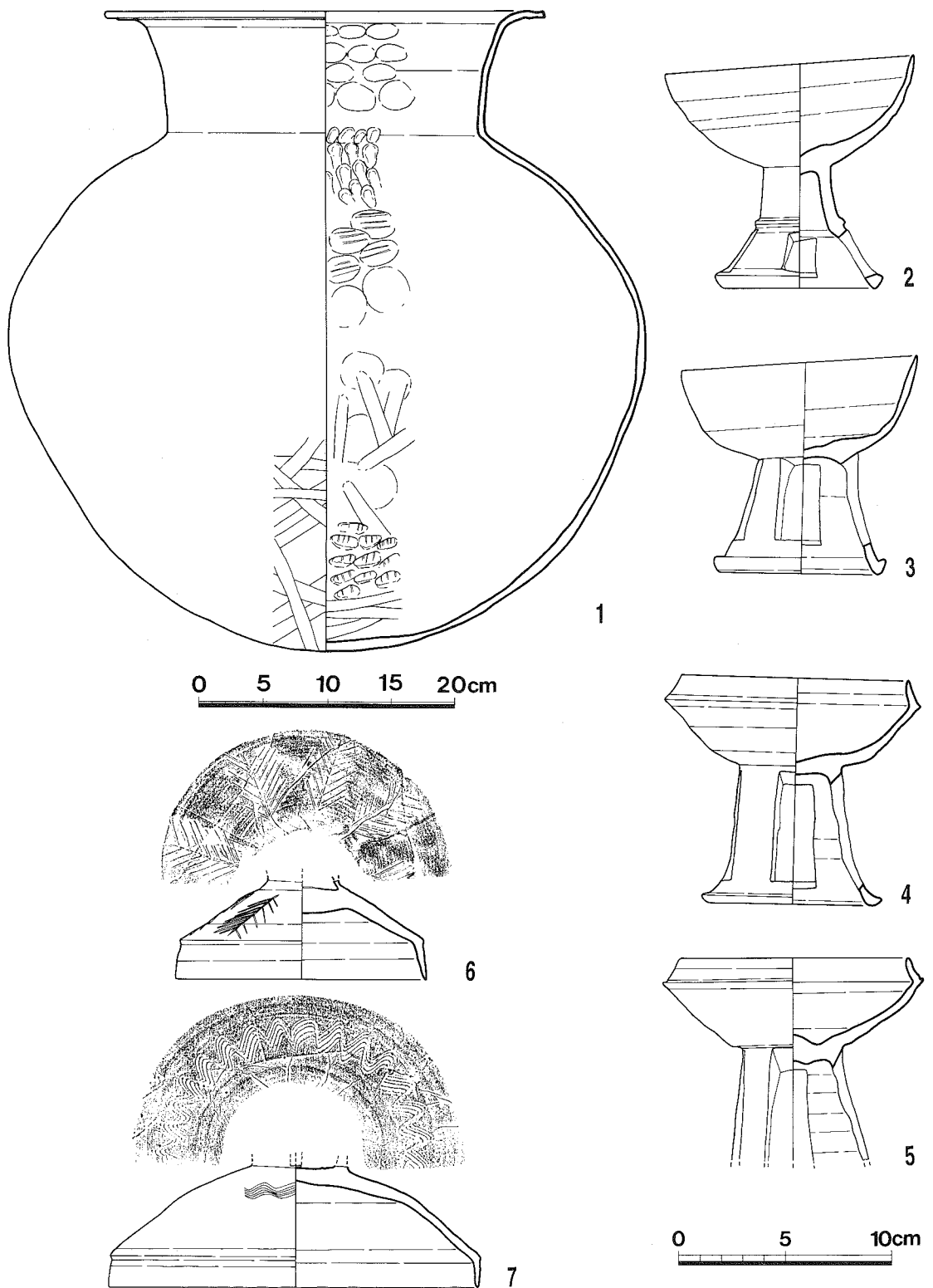
3은 口緣部를 포함한 杯身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을 포함한 石英, 雲母 등이 다량으로 混入되어 있다. 内外面은 황갈색이며 속심은 회갈색이다. 口緣部는 급하게 外傾하다 곧 바로 直立한다. 低部에는 예새각기한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規格은 높이 13cm, 口徑 11.2cm, 低徑 5.8cm이다. 出土位置 : 13

圖面. 9-4(圖版. 14-5)는 陶質製의 長頸壺인데 燒成은 불량한 편이며 胎土에 長石과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다. 内外面은 회청색이며 燒成이 불량하여 표면박리가 심하다. 低部에서 胴中位部分까지 格子打捺痕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打捺痕을 물손질로 지워 버렸다. 規格은 높이 18.7cm, 口徑 12.2cm, 胴最大徑 16.1cm이다. 出土位置 : 9

圖面. 9-5(圖版. 14-6)는 陶質製의 短頸壺인데 燒成은 보통이며 口緣部과 胴體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胎土는 비교적 精選되었으나 長石과 石英의 混入量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内外面은 회색조이며 胴體部에는 전체적으로 格子打捺이 되어 있으며 口緣部까지 打捺文이 남아 있다. 內面에는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規格은 높이 27cm, 口徑 16.5cm, 胴最大徑 25.5cm이다. 出土位置 : 10

圖面. 9-6(圖版. 15-2)은 臺附長頸壺인데 陶質製이며 燒成은 매우 良好한 편이다. 口緣部가 1/2정도 결실되었으나 비교적 完形에 가깝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内外面 회청색, 속심은 자색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整面하였다. 臺脚에 1段의 長方形 透窓 6개가 배치되어 있다. 口頸部에 돌대를 기준으로 上·下 7치구의 集線 波狀文 1조를 시문하였다. 동체상부에 일부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8.8cm, 口徑 14cm, 低徑 14cm, 胴最大徑 23.3cm이다. 出土位置 : 16

圖面. 9-7(圖版. 14-4)은 短頸壺인데 燒成은 불량한 편이다. 파손이 심하여 口緣部와 胴體部의 일부만 남아 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지만 비교적 精選되었다. 内外面은 모두 회백색이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規格은 잔존높이 21cm, 口徑 15.1cm, 胴最大徑 22.2cm, 出土位置 : 15



圖面. 10 4號墳 出土遺物(1, 竝란: 2~7) <1:1/5, 2~7: 1/3>

圖面. 10-1(圖版. 15-1)은 陶質製의 大壺로 燒成은 보통이며 口緣部와 胴體部の 절반만 남아 있다.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 雲母등이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胴體部는 打捺후 회전물손질하여 打捺文을 지웠다. 低部는 물손질로 마무리하였으며 內面에는 拍子와 물손질 痕迹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規格은 높이 52cm, 口徑 35cm, 胴最大徑 50cm이다. 出土位置 : 12

이하의 遺物은 유구의 內部調査過程 중에 攪亂된 部分에서 수습된 유물들이다.

圖面. 10-2(圖版. 13-9)는 陶質製의 臺附碗으로 口緣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燒成은 良好한 편이며,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混入 되어 있다. 內面은 회색, 外面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臺脚에 돌대를 돌려 2단으로 區劃하고 下段에만 方形 透窓 4개를 配置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산화박리 되어 있다. 높이 11.4cm, 口徑 11.8cm, 低徑 7.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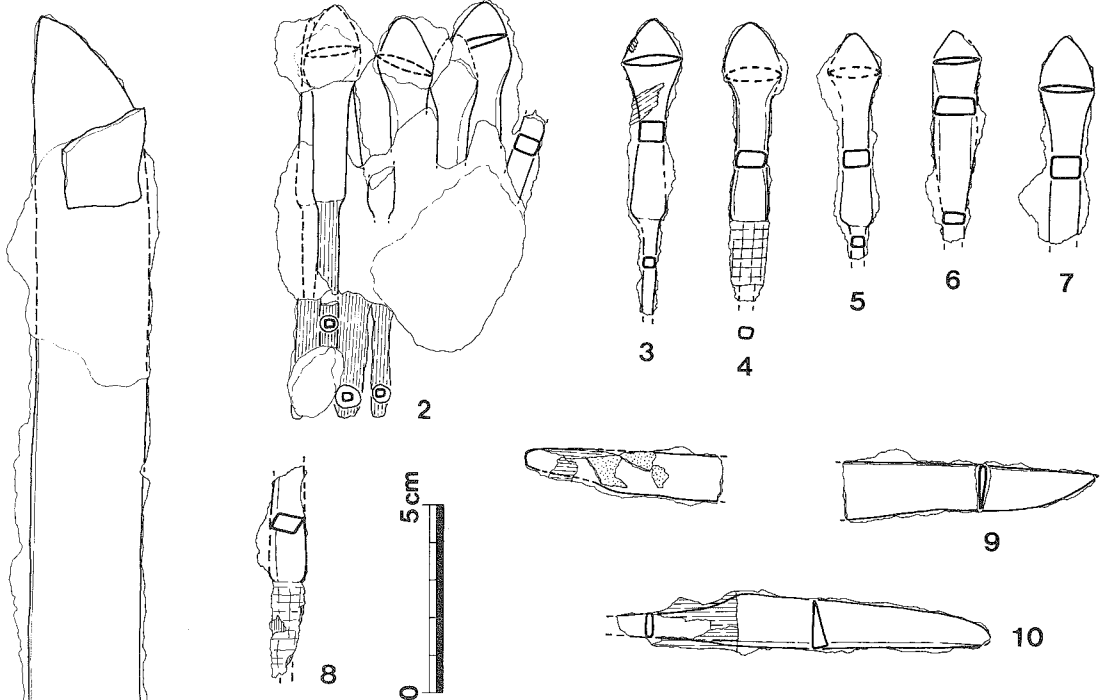
圖面. 10-3(圖版. 13-10)은 陶質製의 臺附碗으로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臺脚은 일부 결실되었으나 비교적 완형에 가깝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이 소량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은 암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回轉木理 調整 후 전체를 회전물손질 整面하였다. 臺脚에는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가 配置되어 있다. 口緣과 臺脚末端에 자연유가 일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0.2cm, 口徑 11.2cm, 底徑 7.5cm이다. .

圖面. 10-4, 5(圖版. 13-11, 12)는 1段透窓高杯로 陶質土器이다. 4는 燒成이 不良한 편이며 口緣과 臺脚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에 長石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부분적으로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자색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고 있는데 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이다. 臺脚에는 1段的 細長方形 透窓 4개가 配置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0.9cm, 口徑 10.8cm, 低徑 7.6cm이다.

5는 燒成 良好한 편이며 口緣과 杯身과 臺脚段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에 長石이 소량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색, 속심은 자회색이다. 口緣部에 自然油가 산화박리 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9.7cm, 口徑 10.8cm이다.

圖面. 10-6, 7(圖版. 13-13, 圖版. 14-1)은 蓋로서 陶質土器이며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두 점 모두 꼭지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나, 6은 4개의 透窓이, 7은 5개의 透窓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6은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혼입되어 있으며, 內外面이 암회청색이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되고 다시 杯身に 縱으로 沈線 하나를 넣고, 그 양 옆으로 6~8개의 短斜線을 施文한 솔잎문양이 6개 새겨져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5.1cm, 口徑 11.8cm이다.

7은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은 암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전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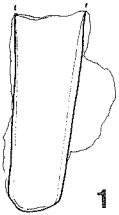
圖面. 11 4號墳 出土遺物(1~10) <1/2>

회전물손질하고, 외면에 6齒具의 집선 파상문 1조를 시계 반대방  
향으로 시문하고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6cm, 口徑 17.5cm이다

b. 鐵器

圖面. 11-1(圖版. 16-1)은 大刀인데 柄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두께면에서는 大刀이지만 길이는 일반 대도의 절반정도에 불과  
하여 아마도 부러진 대도를 再加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된다. 身部の 단면은 삼각형이고, 柄部の 단면은 長方形이다.  
規格은 잔존길이 36cm, 幅 3.0cm, 두께 0.7cm, 重量 324.4g이다.  
出土位置 : 2

圖面. 11-2(圖版. 15-3)은 鐵鏃群으로 총 9점이 돌과 함께 鏤着  
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鏃頭가 남아 있는 4점은 모  
두 柳葉形이다. 鏃身 단면은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은 장방형이  
나 방형이다.



圖面. 11-3~8(圖版. 15-4~9)은 柳葉形의 鐵鏃으로 6, 7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들은 屍床石 위에 놓여진 상태로 검출되었다. 유물의 세부는 다음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g)			說 明	出土 位置
		길이	幅	重量		
11-3	15-4	(7.5)	1.5	14.5	莖部 일부 결실. 身部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방형. 莖부에 白樺樹皮痕 잔존	8
11-4	15-5	(8)	1.5	14	莖部 일부 결실. 鏃身단면 볼록렌즈형. 莖部단면 方形. 鏃身部 일부부분에 목질흔 잔존	7
11-5	15-8	(6.2)	1.3	10.7	莖部 결실. 鏃身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方形	9
11-6	15-6	(5.5)	1.2	9.2	莖部 일부 결실. 身부와 莖부의 경계가 불명확함. 身 부의 단면은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
11-7	15-7	(5.5)	1.2	13.9	莖部 결실. 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
11-8	15-9	(5.5)	1.0	8.5	鏃身이 완전히 파손. 莖부의 단면 方形. 莖부에 白樺 樹皮와 목질흔이 잔존	5

圖面. 11-9, 10(圖版. 15-10, 11)은 鐵製의 刀子이다. 9는 身部가 일부 되었다. 身部の 단면은 직각삼각형을 띠고 있어 한 방향에서 날을 세워 사용하였다. 柄部の 단면은 細長方形이며 표 면에는 목질흔이 수차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길이 6cm, 幅 1.3cm, 두께 0.3cm, 重量 7.4g이다. 出土位置 : 1

10은 柄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身部 단면은 삼각형이며. 柄部 단면은 장방형이다. 柄부에 목 질흔과 유기질흔이 일부 남아 있다. 規格은 잔존길이 10.2cm, 幅 1.0cm, 重量 14.5g이다. 出土 位置 : 6

## 5. 5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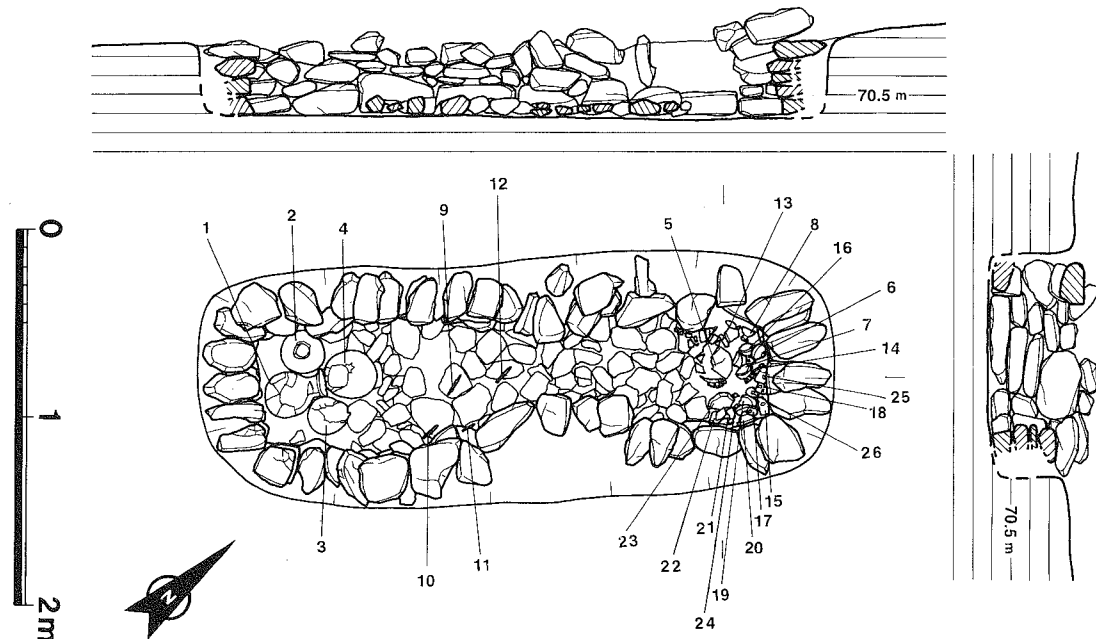
### 1) 遺構(圖面. 12, 圖版. 8)

유적의 主丘陵에 해당하는 해발 70.5~71m사이에 위치하는 豎穴式 石槨墓로 遺構의 축조방 향은 등고선과 일치한다. 5號墳의 동남쪽으로 50cm정도 떨어져 小形 豎穴式 石槨墓인 6號墳 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장단벽 모두 4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북장벽의 서쪽부 분은 盜掘로 인해 축벽석의 일부가 제거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遺構의 規格은 길이 310cm, 너비 120cm, 잔존깊이 45cm이며, 주축방향은 N43°E이다.

遺構의 축조방법은 1, 2단은 가로쌓기하고 3단부터는 세로쌓기하였다. 遺構의 평면구조는 遺構의 중앙에 被葬者를 위한 시상부분이 위치하고, 양쪽공간을 遺物을 副葬하기 위한 부장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상부분에는 대략 15cm내외의 할석이 깔려 있으며, 遺物을 부장하기

위한 부장공간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土器類가 대부분이며 鐵器類가 6점이다. 土器는 양쪽의 부장공간에 나누어 부장되어 있는데 북동쪽 부장공간에는 주로 有蓋高杯類가, 남서쪽 부장공간에는 壺類가 부장되어 있다. 鐵器類는 鐵鏃과 刀子로 시상의 중간쯤에서 莖部가 동쪽을 향한 채로 출토되었다.



圖面. 12 5號墳 遺構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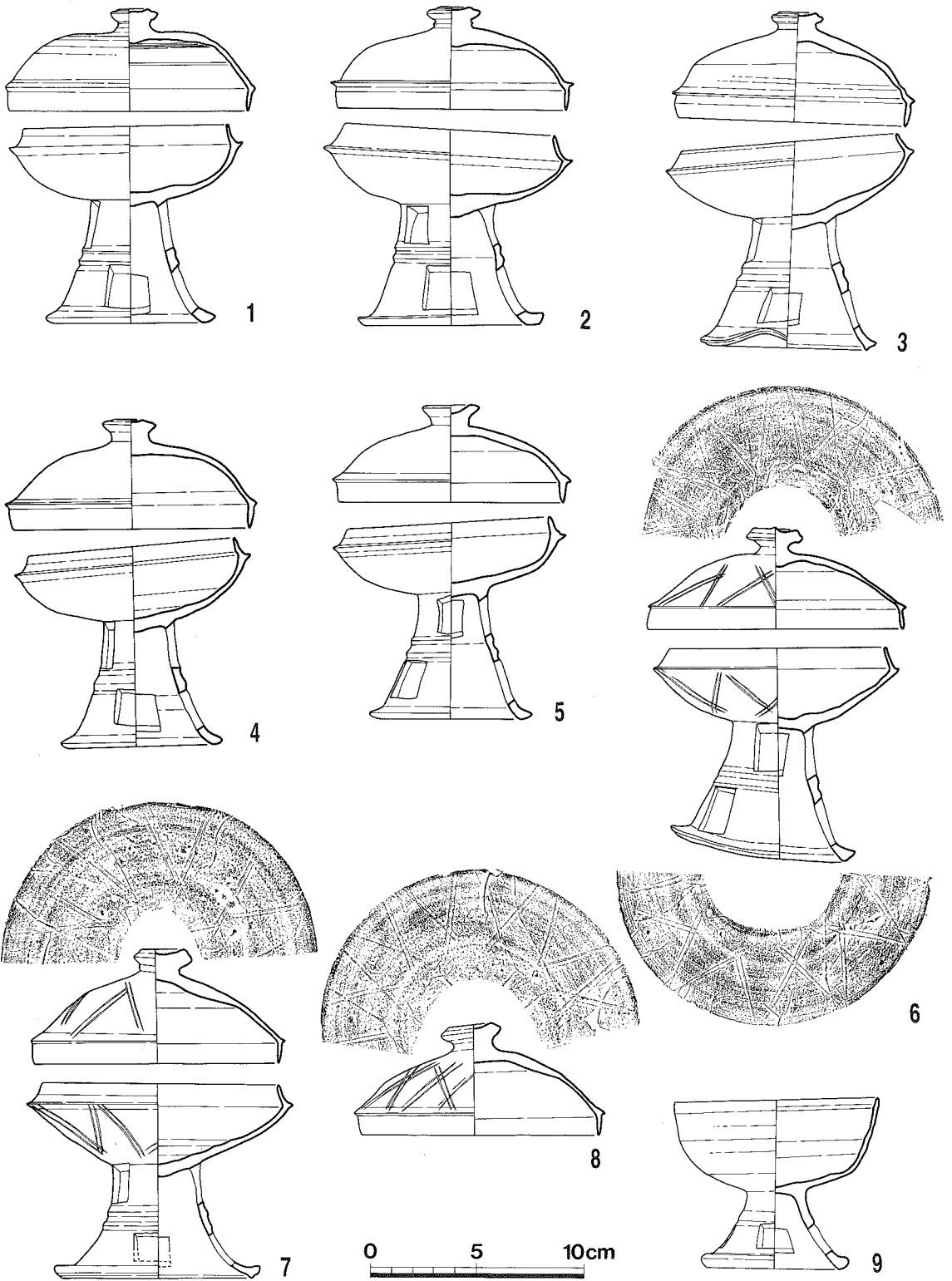
## 2) 遺物

### a. 土器

土器는 유구의 양단벽에 연하여 집중적으로 副葬되어 있었다. 부장양상을 보면, 주로 有蓋高杯를 포함한 小形土器類들과 壺類 등의 비교적 부피가 큰 유물로 나누어져 있다. 북단벽에서는 주로 小形土器가 대량으로 부장되어 있었는데 有蓋高杯가 7점, 蓋 1점, 臺附碗 1점, 臺附長頸壺 2점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남단벽에서는 壺類가 4점 확인되었다.

高杯類들은 모두 有蓋高杯들로서 전체적으로 유물이 뒤섞인 상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세트관계는 알 수 없다. 圖面の 高杯와 蓋의 관계는 편의상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高杯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文樣이 施文된 것과 施文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臺脚段의 형태에 다소의 차이점이 보인다. 세부내용은 서술의 편의상 표로 처리한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높이	口徑	底徑		
13-1	16-2	9	9.8	7.8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口緣部, 臺脚末端部 자연유 산화박리.	19
		4.8		11.1	蓋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꼭지와 내면에 자연유 산화박리.	15
13-2	16-3	10	9.8	8.5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口緣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口緣部, 臺脚 末端部, 杯身내면에 자연유 산화박리.	16
		5.4		11	蓋 : 陶質, 燒成良好.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꼭지와 내면에 자연유 산화박리	17
13-3	16-4	10.6	10.4	8.8	高杯 : 燒成 良好. 口緣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내외면 회청색, 속심 회색, 杯身내면 일부 회전목리.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杯身に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施文. 杯身 내면과 臺脚 말단부에 자연유 산화박리.	23
		5.4		11	蓋 : 陶質, 燒成 良好. 토기를 겹쳐서 燒成.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회청색, 전체 회전물 손질 정면, 꼭지, 내면, 口緣部에 자연유 산화박리.	20
13-4	16-5	10	9.5	7.5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臺脚 접합부에 회전목리흔.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口緣部와 臺脚 말단부에 자연유 산화박리	18
		6		11.4	蓋 : 陶質, 燒成良好. 토기를 겹쳐서 소성.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정면, 내면과 口緣部에 자연유 산화박리.	6
13-5	17-1	10	9.5	7.6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杯身 일부 회전목리흔 잔존. 전체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杯身 내면에 표면 산화박리.	7
		4.5		10.6	蓋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杯身 일부 회전목리흔. 전체 회전물손질. 口緣部에 자연유 산화박리.	14



圖面. 13 5號墳 出土遺物(1~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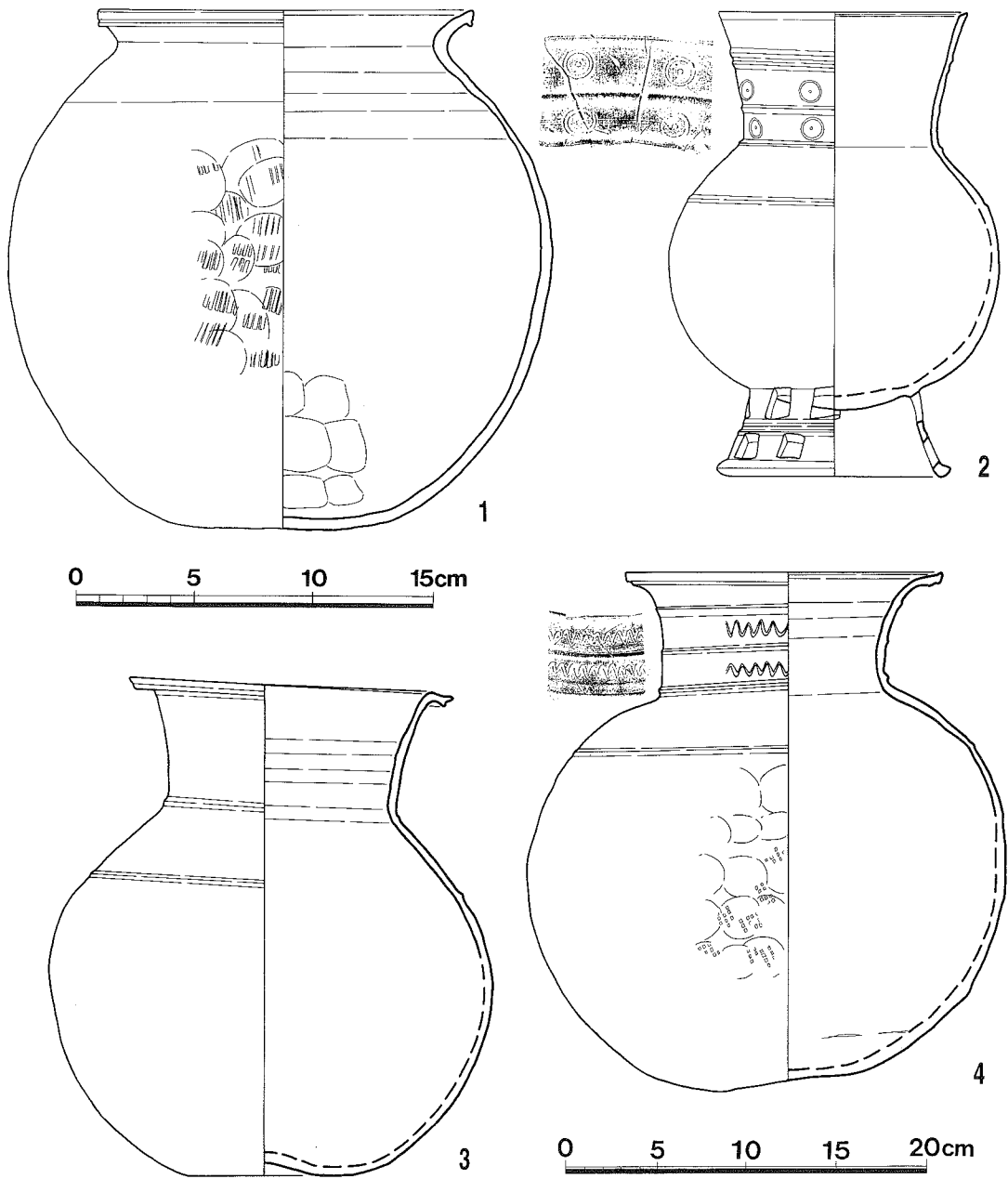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높이	口徑	底徑		
13-6	17-2	10.5	10.5	8.8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배신에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오른쪽으로 施文. 口緣部, 臺脚말단에 자연유 박리, 깊은잔존.	22
		6		12	蓋 : 陶質. 塑性 良好. 구연 일부 결실.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암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施文. 내면, 꼭지, 口緣部에 자연유 박리되고 깊은 잔존.	26
13-7	17-3	10.2	10.5	8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배신과 臺脚 1/2정도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배신 일부 회전목리흔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오른쪽으로 施文. 臺脚말단부에 자연유 박리.	24
		5.8		11.5	蓋 : 陶質. 燒成 良好. 토기를 겹쳐서 소성.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施文. 꼭지, 내면에 자연유 박리되고 깊은 잔존. 구연에 자연유 박리	25
13-8	16-7	6		11.7	蓋 : 陶質. 燒成 良好. 토기를 겹쳐서 소성.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전체 회전물손질. 2줄을 단위로 서로 交叉하여 施文. 꼭지와 내면에 자연유 박리.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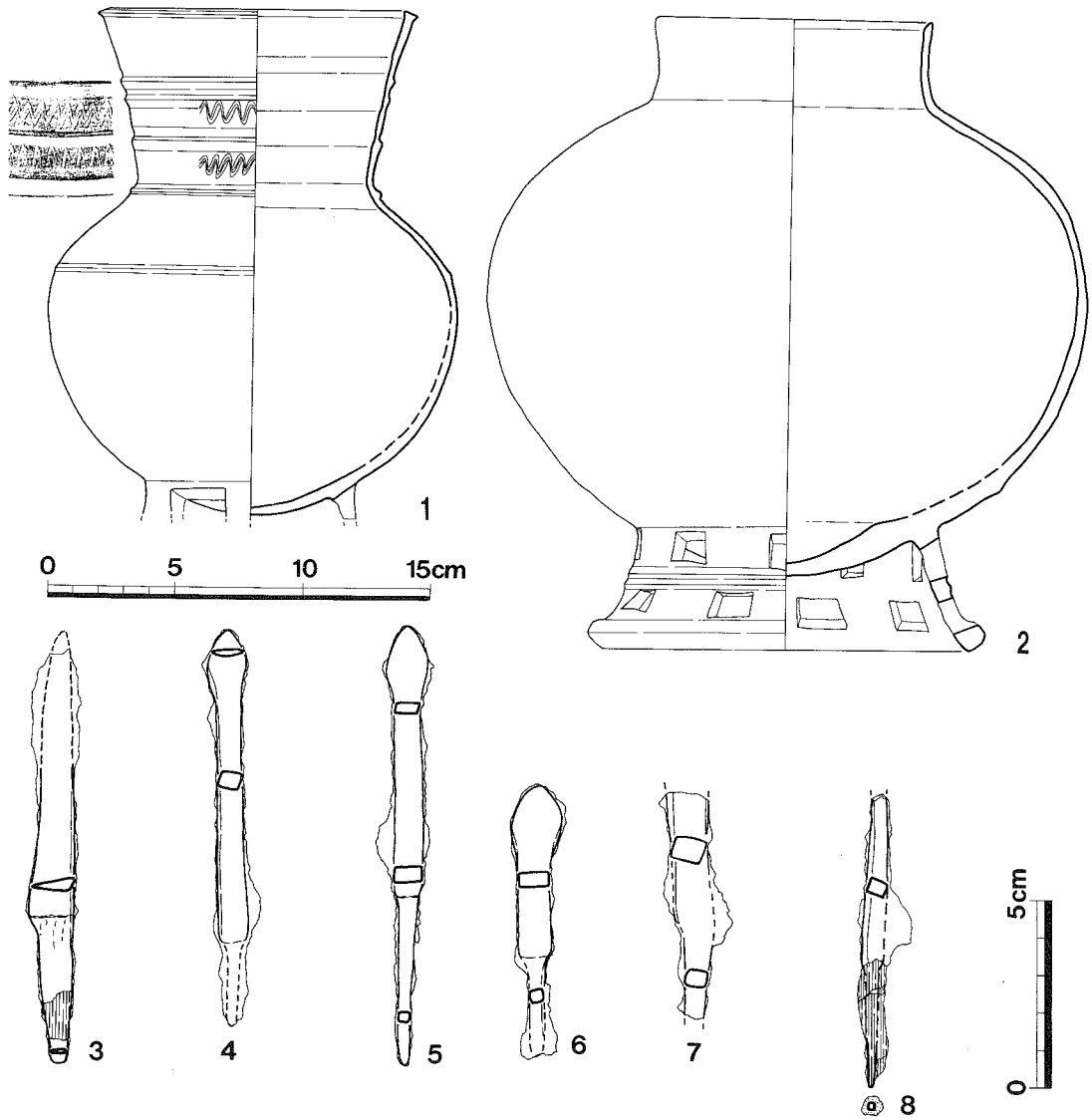
圖面. 13-9(圖版. 16-6)는 臺附碗으로 陶質製이며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胎土에 長石, 石英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 회청색을 띤다. 臺脚 接合부에 회전목리흔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고 있다. 臺脚에는 약한 돌대로서 2단으로 구획하였으나 하단의 1단에만 3개의 투창을 배치하고 있다. 杯身 내면에 암록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8.5cm, 口徑 10cm, 底徑 6.8cm이다. 出土位置 : 8

圖面. 14-1(圖版. 17-4)은 陶質製의 短頸壺인데 燒成은 보통이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胴體部는 平行打捺한 후 회전물손질 정면을 행하였다. 내면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보인다. 口緣部는 1/2정도 결실되었다. 規格은 높이 23cm, 口徑 16cm, 胴最大徑 23.5cm이다. 出土位置 : 3

圖面. 14-2(圖版. 18-3)은 陶質製의 臺附長頸壺인데 燒成은 보통이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胴體部에 박자후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圖面. 14 5號墳 出土遺物(1~4) 〈1: 1/3, 2~4: 1/4〉



圖面. 15 5號墳 出土遺物(1~4·7·8, 교란: 5~6) <1·2: 1/3, 3~8: 1/2>

있으며 臺脚 接合부에 회전목리흔이 있다. 臺脚에 上·下 交叉된 方形 透窓이 9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頸部에 돌대를 기준으로 상·하 1열의 콤파스문이 8개씩 시문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6.5cm, 口徑 14cm, 底徑 13cm, 胴最大徑 20cm이다. 出土位置 : 5

圖面. 14-3(圖版. 17-5)은 陶質製의 中頸壺인데 燒成은 대단히 좋은 편이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 회색을 띤다. 口緣部와 胴上部에 자연유가 산화바리되어 있다. 內面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整面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拍子痕과 指頭痕이 관찰된다. 規格은 높이 28cm, 口徑 18cm, 胴最大徑 26cm이며 出土位置는 1이다.

圖面. 14-4(圖版. 18-1)는 陶質製의 中頸壺이며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색이다. 內面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外면에

는 格子 打捺한 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頸部는 돌대로서 3단으로 區劃하여 2, 3단에 單齒具로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口緣部는 1/3정도가 남아 있으며 胴體部에 자연유가 酸化剝離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31cm, 口徑 20cm, 胴最大徑 30cm이다. 出土位置 : 4

圖面. 15-1(圖版. 18-2)은 陶質製의 臺附長頸壺인데 燒成은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胎土이며 長石, 石英이 다소 혼입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臺脚은 대부분 결실되었으나 低部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6개의 透窓이 배치되어 있다. 頸部에 돌대를 기준으로 上·下로 2-3차구의 波狀 集線文이 施文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20.5cm, 口徑 12.5cm, 胴最大徑 17.5cm이다. 出土位置 : 13

圖面. 15-2(圖版. 18-4)는 陶質製의 臺附直口壺인데 燒成은 良好하다. 胎土에 長石, 石英이 다소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胴체 하단부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 목리흔이 관찰된다. 臺脚은 上·下 交叉된 方形 透窓 9개씩 2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臺脚段部分에 靑흔이 남아 있으며 頸部와 胴體上部에 자연유가 일부 산화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5cm, 口徑 11cm, 底徑 16cm, 胴最大徑 24cm이다. 出土位置 : 2

## b. 鐵器

鐵器類는 遺構의 중앙부분에서 확인되었는데 刀子와 鐵鏃들이다.

圖面. 15-3(圖版. 19-1)은 鐵製의 刀子로 先端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刃部는 약하게 灣入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용으로 인한 마모의 흔적으로 보인다. 身部의 단면 삼각형은 柄部의 단면은 怨圓形이다. 柄部에 목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規格은 잔존길이 10.5cm, 幅 1.2cm, 두께 0.4cm, 重量 13.2cm이다. 出土位置 : 12

圖面. 15-4~8(圖版. 19-2~6)은 鐵鏃으로 遺構의 바닥에서 3점이, 2점은 교란된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세부내용은 표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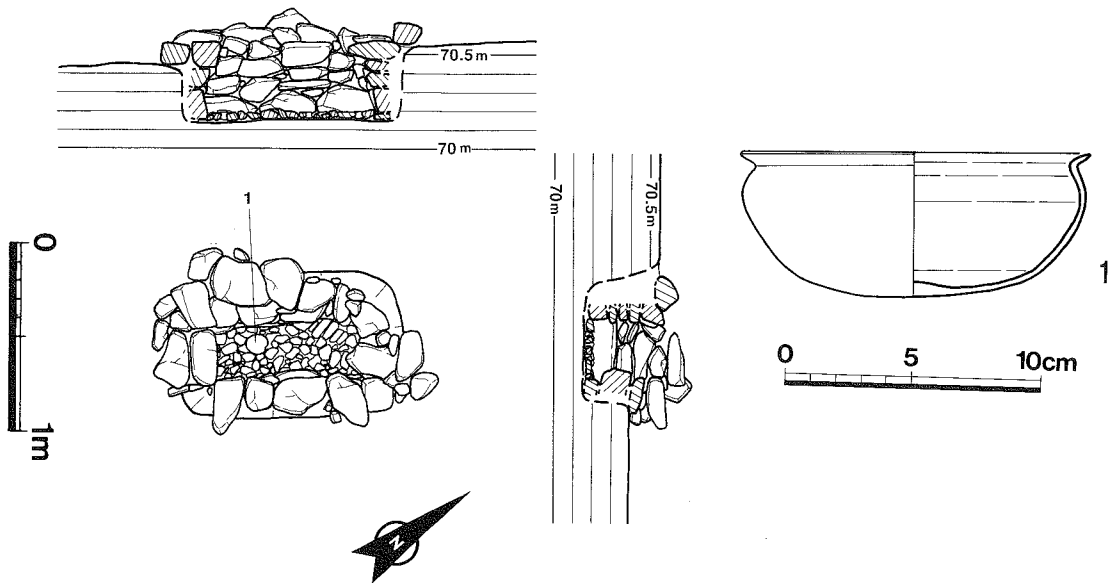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길이	幅	重量		
15-4	19-3	10.7	1.1	13.1	完形. 鏃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10
15-5	19-2	12	0.7	11.7	完形. 鏃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
15-6	19-4	7.3	1.3	7.2	完形. 鏃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
15-7	19-6	(6)	1	13.9	鏃身部 파손. 莖部 일부 결실. 莖部 단면 방형	9
15-8	19-5	(7.6)	0.7	7.1	鏃身部 결실. 莖部 단면 방형	11

## 6. 6號墳

### 1) 遺構(圖面. 20, 圖版. 8)

6號墳은 5號墳의 남쪽에 해발 70~70.5m 사이에 위치하는 소형의 竪穴式 石槨墓로 遺構의 전체가 완전한 채로 조사되었다. 遺構의 上面에 蓋石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 당시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측벽은 5단 정도로 側壁石이 모두 남아있는 유일한 石槨이다. 規模는 길이가 135cm, 너비가 100cm, 깊이가 60cm로, 조사된 유구 중 가장 작은 규모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고 N35° E이다.

遺構의 축조 방법은 30~40cm 정도의 割石으로 3매를 가로쌓기하여 장벽의 최하단석으로 하고 양쪽 단벽의 최하단석은 큰 할석 하나로 구성하여 장벽과 단벽을 동시에 쌓았다. 측벽은 대체로 가로쌓기방법을 사용하였다. 바닥에는 10cm내외의 자갈들을 전면에 깔았다. 遺物은 遺構의 중앙부분 屍床石 위에서 軟質碗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16 6號墳 遺構와 遺物 <遺構: 1/40, 遺物: 1/3>

### 2) 遺物

#### a. 土器

圖面. 16-1(圖版. 19-7)은 軟質의 碗으로 燒成이 극히 불량하다. 胴體部는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胎土에는 長石, 石英 등이 混入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선된 느낌이다. 內外面과 속심은 회백색이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관찰은 불가능하다. 規格은 높이 5.8cm, 口徑 13.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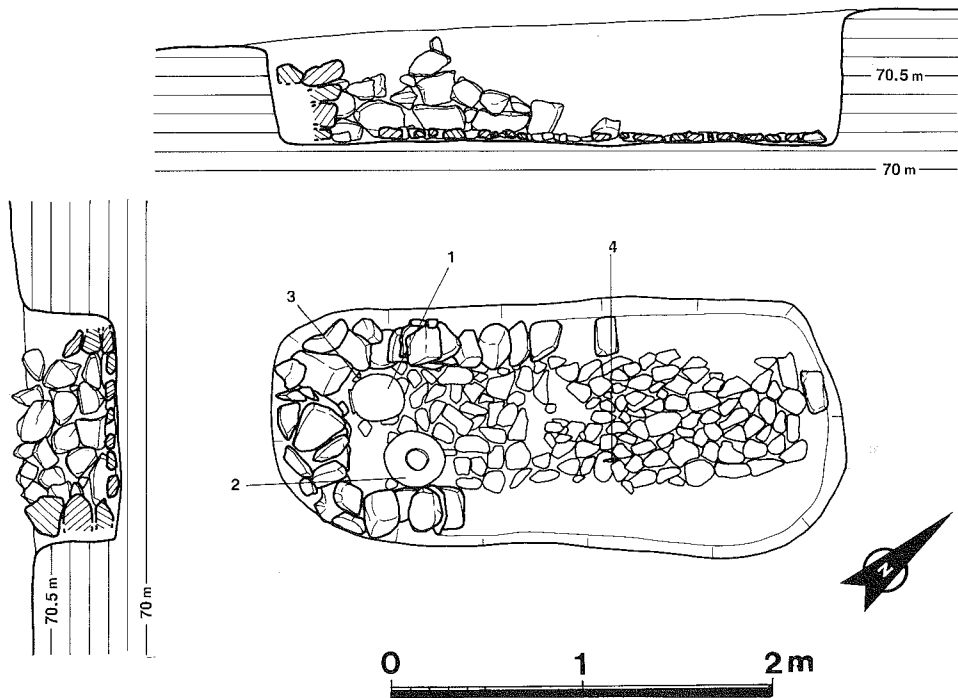
## 7. 7號墳

### 1) 遺構(圖面. 17, 圖版. 9)

6號墳과 8號墳 사이의 해발 70~70.5m선상 위치한다. 양쪽 장벽은 1~3단까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동쪽 단벽도 완전히 파괴되어 屍床만 남아 있다. 遺構의 잔존상태는 墓壙線을 따라 대부분의 側壁石이 제거되고 남쪽단벽만이 비교적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 북쪽의 단벽과 장벽의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遺構의 規格은 잔존길이 284cm, 너비 120cm, 잔존깊이 55cm이며 장축방향은 N39°E이다.

調査 당시 遺構는 墓壙線을 따라 대부분의 측벽석이 제거되어 있었다. 이는 盜掘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의 耕作過程에서 돌들을 제거하면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側壁石이 대부분 流失되어 버린 상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축조방법을 알 수 없으나 最下段石은 가로쌓기하고 2단부터 세로쌓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상은 서쪽 단벽 부근의 유물 부장공간을 제외하고 15~20cm정도의 납작한 돌을 전체에 깔았다. 시상의 外緣부분은 할석을 길이방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屍床石을 깔기 전에 미리 가장자리부분을 區劃하고, 내부를 채워 나갔음을 의미한다.



圖面. 17 7號墳 遺構 <1/40>

屍床石이 깔리지 않은 부장공간에 집중하여 遺物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유구가 攪亂되면서 대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바닥에서는 軟質壺와 短頸壺가 검출되었으며 軟質壺의 아래부분에서 臺附碗 1점이 확인되었다. 유물부장공간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遺物

### a. 土器

圖面. 18-1(圖版. 20-1)은 陶質製의 短頸壺인데 燒成은 매우 良好한 편이다. 器形은 燒成時에 심하게 변형이 일어나 일그러져 있다. 口緣部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비교적 完形에 가깝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암회청색이다. 胴體部에 平行打捺이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암록색의 자연유가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다. 燒成溫度에 의해 器面 전체에 걸쳐 다량의 기포가 발생하였다. 規格은 높이 30.1cm, 口徑 20.7cm, 胴最大徑 28.8cm이다. 出土位置 : 2

圖面. 18-2(圖版. 19-10)는 軟質製의 壺로 燒成은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비교적 完形에 가깝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가 混入되어 있으며 내외면은 적갈색이다. 동체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 整面하였으나 打捺의 痕迹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規格은 높이 25.3cm, 口徑 16.3cm, 胴最大徑 24.1cm이다. 出土位置 : 1

圖面. 18-3, 4, 5(圖版. 19-11, 12, 9)는 臺附碗으로 3을 제외한 4, 5는 교란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모두 陶質製이며 燒成은 良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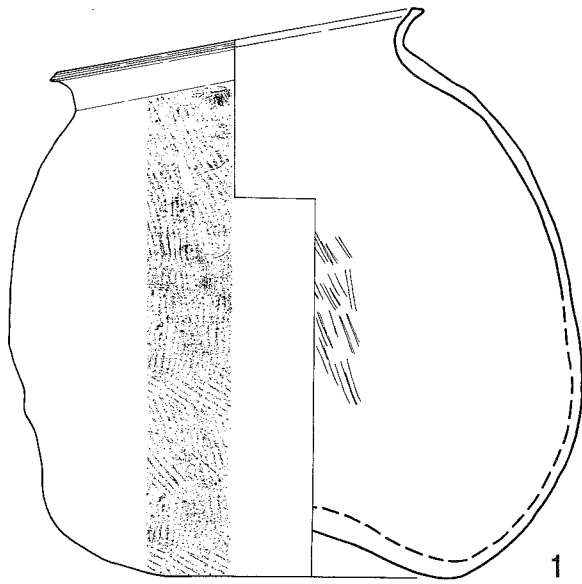
3은 胎土에 長石, 石英이 일부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杯身部는 타원형상으로 찌그러져 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臺脚에는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가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9.7cm, 口徑 13.5cm, 底徑 6.7cm이며, 出土位置는 3이다.

4는 3과 세부사항이 거의 동일하다. 規格은 높이 9.7cm, 口徑 12cm, 底徑 6.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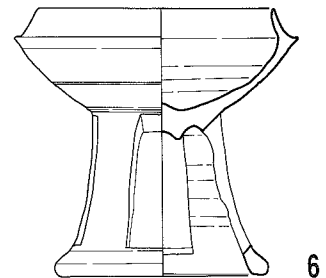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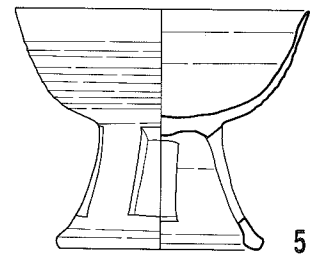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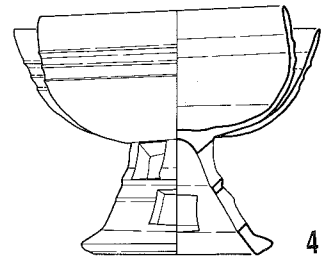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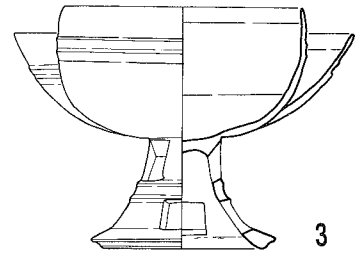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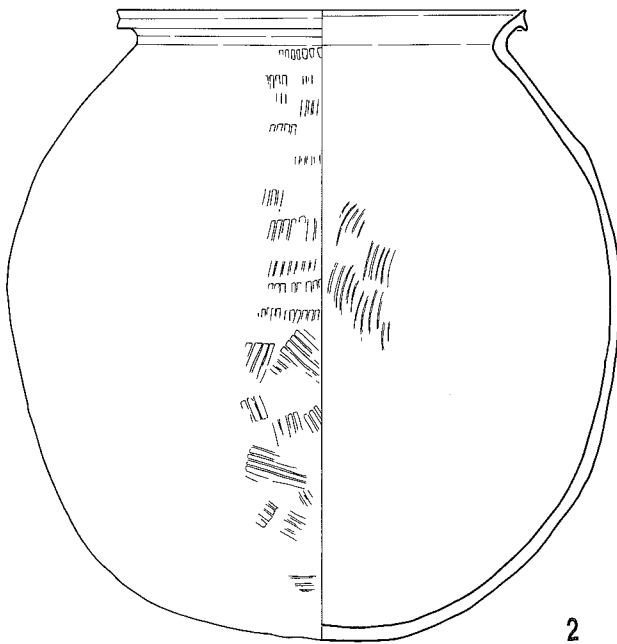
5는 동체부와 대각이 1/2정도 결실되어 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가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은 회청색이다. 臺脚은 1단으로 長方形 透窓 4개를 배치하고 있다. 規格은 높이 9.8cm, 口徑 10.5cm, 底徑 8.3cm이다.

圖面. 18-6(圖版. 19-8)은 陶質製의 1段透窓高杯로 燒成은 瓦質에 가까우며 胴體部와 臺脚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 회백색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整面하였다. 杯身部는 완만한 곡선으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臺脚은 1단으로 細長方形의 透窓 4개를 배치하고 있다. 規格은 높이 10.4cm, 口徑 8.6cm, 底徑 9.4cm이다.

圖面. 19-1, 2(圖版. 20-2, 3)는 陶質製의 臺附長頸壺인데 1은 燒成 보통으로 내외면의 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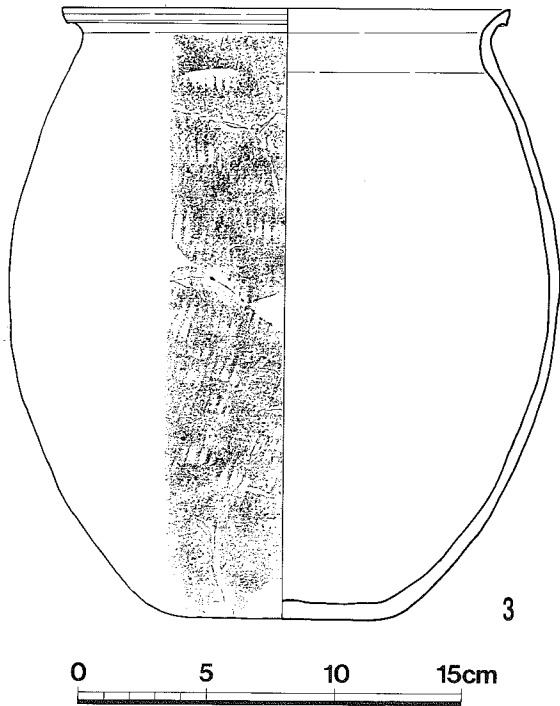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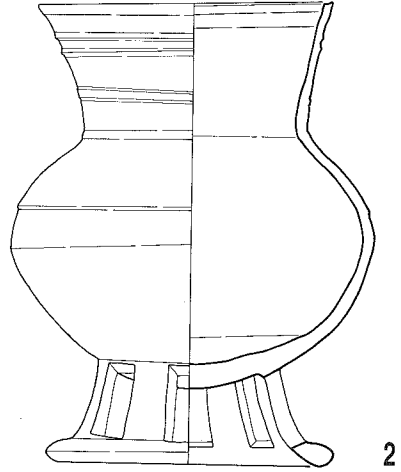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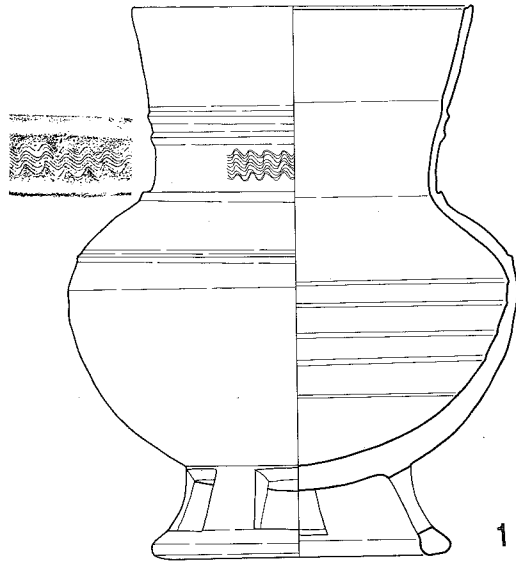
0 5 10 15 20cm



0 5 10cm

圖面. 18 7號墳 出土遺物(1~3, 교란: 4~6) <1: 1/4, 2~6: 1/3>





가 회청색을 띤다. 口緣部와 臺脚이 일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이 混入되어 있다. 동체부분에 회전목리흔이 잘 남아 있다. 口頸部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아래에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臺脚은 1단의 方形 透窓 6개가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2.2cm, 口徑 13.4cm, 底徑 11.7cm, 胴最大徑 17.7cm이다.

2는 燒成 良好하며 口頸部 일부가 파손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面이 회청색이다. 회전물손질로 整面하였으며 胴下部 內外面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臺脚은 1단의 方形 透窓 5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胴體部에 비하여 臺脚이 긴 느낌을 준다. 規格은 높이 11.4cm, 口徑 9.5cm, 底徑 8.5cm, 胴最大徑 15cm이다.

圖面. 19-3(圖版. 20-4)은 燒成이 良好한 軟質甕인데 口緣部와 胴體部가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圖面. 19 7號墳 出土遺物(교란: 1~3) <1/3>

가 混入되어 있으며 内外面이 암적갈색이다. 胴體部에 縱方向으로 平行打捺하였으며, 내면에 內拍子痕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規格은 높이 29.5cm, 口徑 17.9cm, 底徑 8cm, 胴最大徑 2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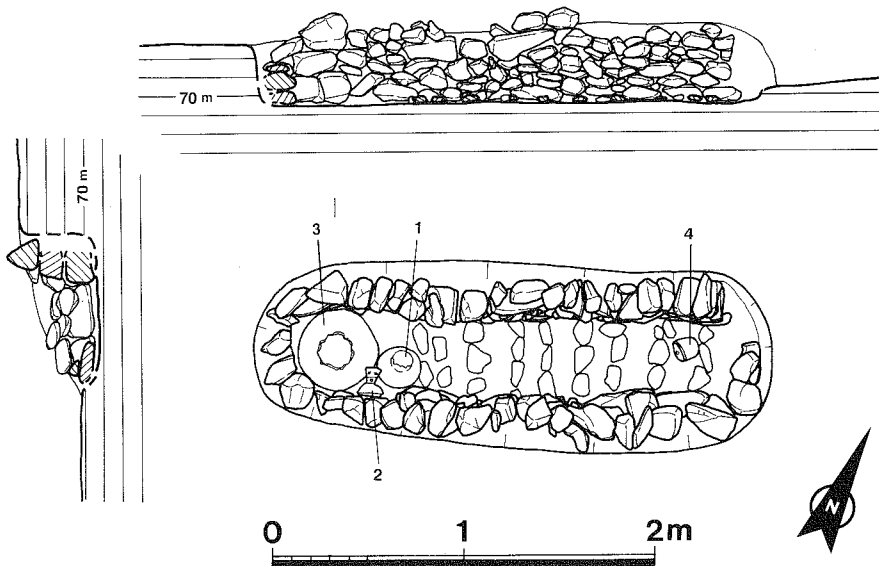
## 8. 8號墳

### 1) 遺構(圖面. 20, 圖版. 10)

7號墳의 남쪽 경사면 아래 해발 70~70.5m사이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동북쪽 모서리가 약간 파손되었으나 側壁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長壁은 5~6단 정도, 短壁은 3단까지 남아 있다. 主軸方向이 N63°E이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遺構의 規格은 길이 250cm, 너비 80cm, 잔존깊이 50cm이다.

遺構의 築造方法은 2단까지 가로쌓기하고 3단부터는 세로쌓기하고 있다. 측벽의 石材들은 대부분 20cm내외의 小形 割石을 사용하였다. 남쪽의 단벽이 弧狀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반면, 북쪽의 단벽은 교란되어 제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거의 직선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구의 측벽석을 쌓는 과정에서의 시작점과 마무리지점이 북쪽의 단벽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생각된다.

8號墳의 경우 다른 遺構와 비교할 때 異質의인 면이 관찰된다. 먼저 측벽으로 사용된 석재들이 다른 遺構에 비하여 소형의 할석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遺構들이 屍床石을 副葬공간을



圖面. 20 8號墳 遺構 <1/40>

제외한 바닥전면에 깔고 있는 것과 달리 유물 부장을 위한 공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단벽과 평행하게 크기 15cm내외의 할석 3개를 9열로 배치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지니는 의미는 알 수 없으며,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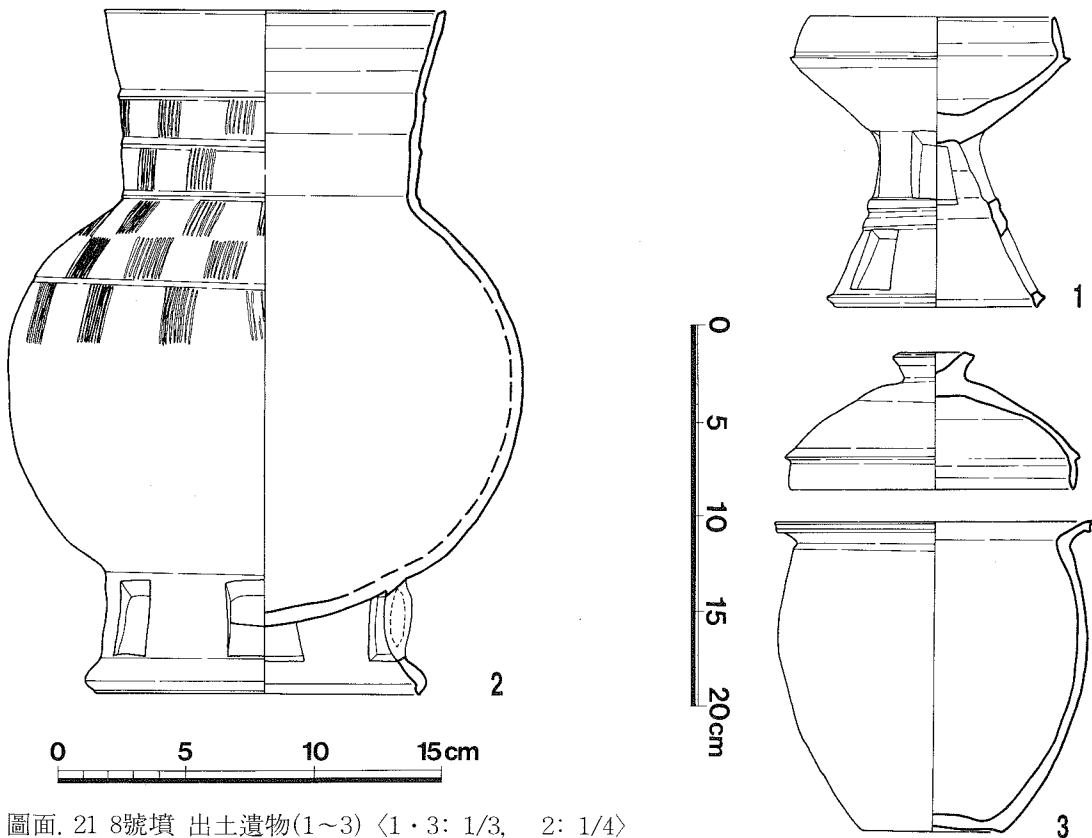
遺物은 남쪽의 부장공간에서 大壺와 臺附長頸壺, 高杯, 그리고 蓋 1점이 각각 검출되었다. 그리고 軟質甕의 구연부에 陶質蓋가 거꾸로 꽂힌 채로 검출되었다.

## 2) 遺物

### a. 土器

圖面. 21-1(圖版. 21-3)은 陶質의 高杯로 燒成은 良好하며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은 회색이며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고 있다. 臺脚에는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4개씩이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1.7cm, 口徑 9.5cm, 底徑 8.5cm이다. 出土位置 : 2

圖面. 21-2(圖版. 21-2)는 陶質製의 臺附長頸壺로서 燒成은 大단히 良好한 편이다.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混入되어 있다. 內外面은 회색조이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整面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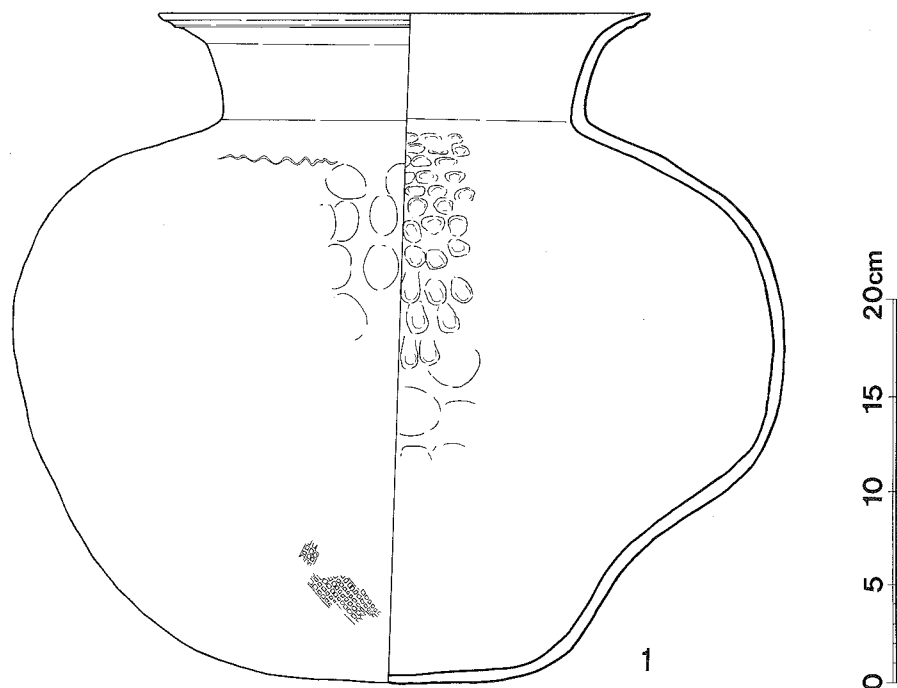
圖面. 21 8號墳 出土遺物(1~3) <1·3: 1/3, 2: 1/4>

臺脚은 1단의 方形 透窓 6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되어 있다. 口頸部에 7치구의 중집선문을 돌대를 기준으로 상·하 교차하여 施文하였으며, 동체 상부에도 1단은 7치구로 2, 3단은 9치구로 縱集線文을 서로 交叉하여 施文하고 있다. 規格은 높이 36.4cm, 口徑 18cm, 底徑 16.8cm, 胴最大徑 27.2cm이다. 出土位置 : 1

圖面. 21-3(圖版. 21-1)은 軟質甕과 陶質蓋로 蓋가 뒤집힌 상태로 甕의 口頸部를 막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모두 燒成은 良好하다. 蓋는 陶質製로 胎土에 長石과 石英이 다소 混入되어 있으며 내외면 암회청색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規格은 높이 4.4cm, 口徑 11cm이다.

軟質甕은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가 混入되어 있으며 적갈색이다. 口緣部가 외측으로 급하게 외반하며 口緣段은 凹凸面을 가진다. 規格은 높이 12.4cm, 口徑 12.5cm, 低徑 9cm이다. 出土位置 : 4

圖面. 22-1(圖版. 21-4)은 陶質製의 大壺로서 燒成은 良好하다. 胎土에 長石, 石英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内外面 회청색이다. 외면에 박자흔이 일부 남아 있으며 低部에 格子打捺후 회전물손질하였으나 일부 격자타날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 指頭痕과 拍子痕이 남아 있다. 胴上部에 1조의 波狀文을 施文하고 있다. 規格은 높이 38cm, 口徑 24cm, 胴最大徑 40.5cm이다. 出土位置 : 3



圖面. 22 8號墳 出土遺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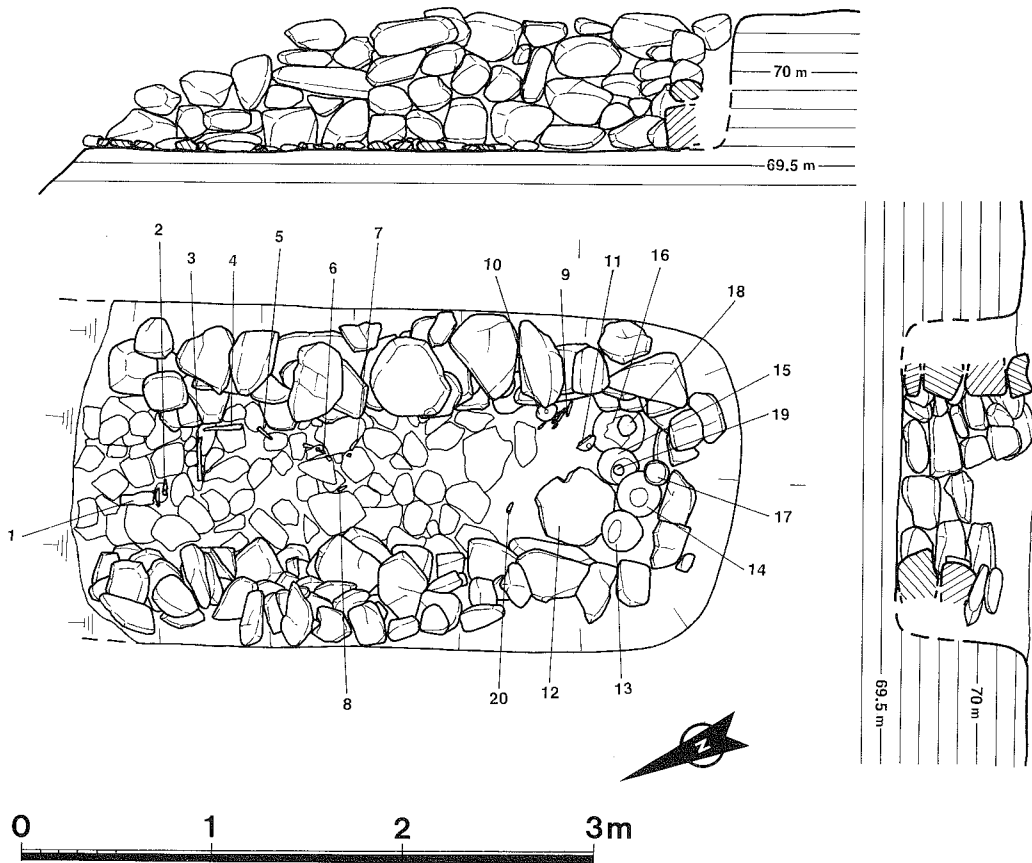
## 9. 9號墳

### 1) 遺構(圖面. 23, 圖版. 11)

9號墳은 4號墳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경사면 아래쪽에 해발 70m선상에 위치한다. 배수로 만들면서 동쪽부분의 양쪽 장벽 일부가 파손되었고, 동쪽 단벽은 완전히 유실되었다. 장벽은 4~5단 정도, 남아 있는 단벽은 4단 정도가 남아 있다. 規模는 잔존 길이 320cm, 너비 140cm, 잔존깊이 70cm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며 N23°E이다.

遺構의 축조방법은 最下段石부터 주로 세로쌓기하였으며 간혹 가로쌓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측벽석의 모서리부분을 보아 長壁과 短壁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벽의 경우 석재를 쌓아 올린 수법이 조잡하여 장벽의 내외측으로 흔들려 제자리를 벗어난 돌이 많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장벽은 쌓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돌을 채워 넣은 인상을 준다.

遺構의 바닥은 割石을 깔아서 屍床臺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유구들이 생토면에 적갈색의



圖面. 23 9號墳 遺構 <1/40>

진흙을 한벌 깔고 시상돌을 그 위에 한벌 덧 깔고 있음에 비해 9號墳의 경우는 생토면에 할석을 깔고 있다. 북쪽장벽은 좀 작은 할석으로 2열을 지어 쌓고 있는 듯 하다. 屍床은 서쪽의 부장부를 제외하고 전체에 다 깔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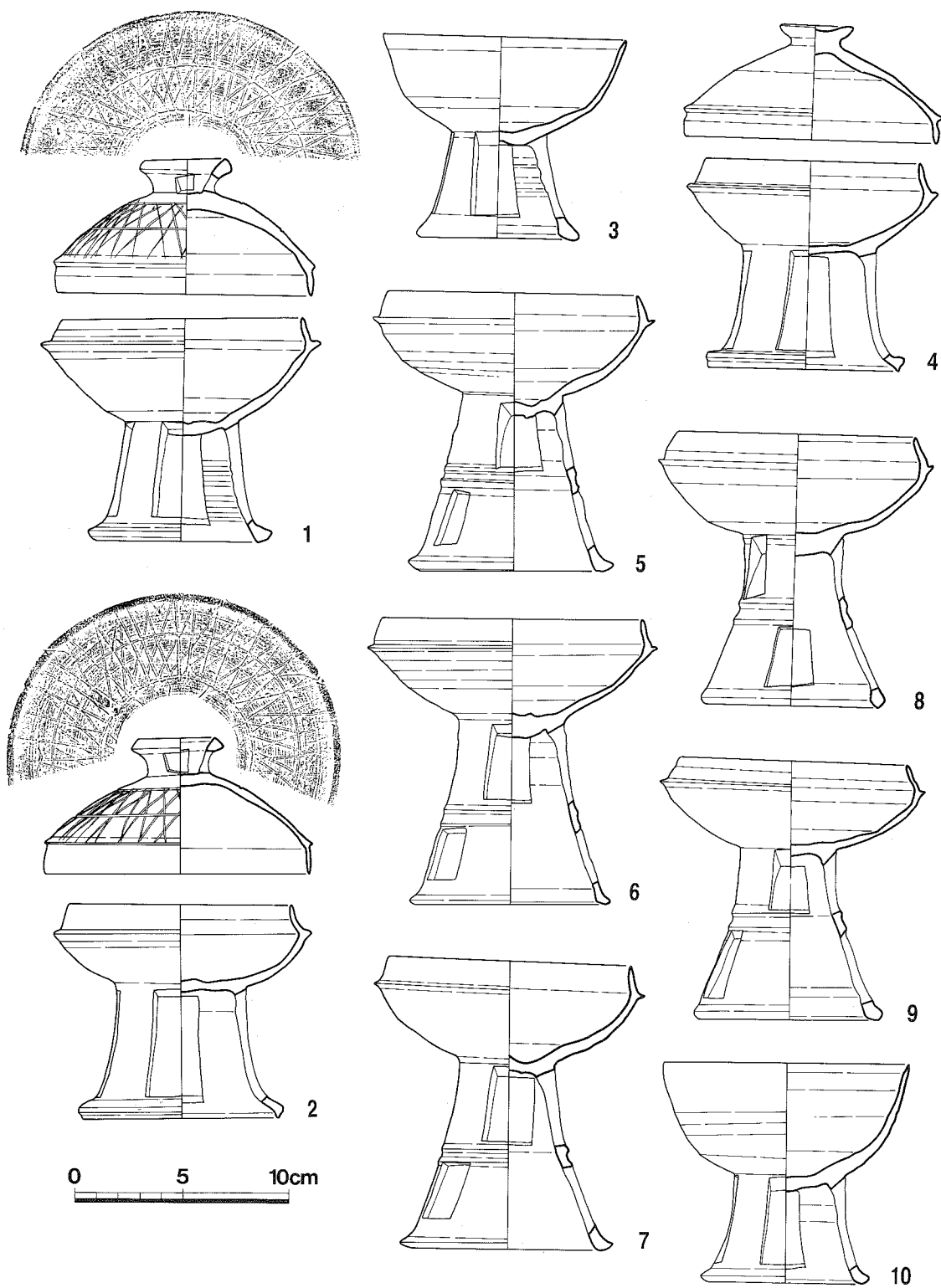
遺物은 土器 13점, 鐵器 16점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모두 副葬槨에서 출토되었고, 철기는 남 장벽쪽의 시상에서 주로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 2) 遺物

### a. 土器

圖面. 24-1, 2, 4(圖版. 22-1, 2, 3)는 1段 透窓高杯로서 3점 모두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이며 1과 4는 공반관계가 분명하지만 2는 高杯와 蓋가 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 4의 관계로 보아 서로 공반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3점의 주요 명세는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높이	口徑	底徑		
24-1	22-2	11.1	12	9.1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구연부 일부 결실.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배신 내부에 회전목리흔이 잔존. 회전 물손질 정면.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 구연, 臺脚에 자연유 박리	10
		6.5		12	蓋 : 陶質. 燒成 良好. 구연부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배신에 사격자로 침선을 오른쪽으로 시문한 후 중간에 횡침선 1줄을 돌림. 꼭지에 方形 透窓 2개.	
24-2	22-1	10.3	10.5	9.2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대각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 구연 내면과 臺脚에 황록색 자연유 박리	19
		6.5		12.3	蓋 : 陶質. 燒成 良好.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반시계 방향). 꼭지에 方形 透窓 2개. 배신에 사격자 침선을 시문한 후, 횡침선을 가운데에 돌림	11
24-4	22-3	10	10.1	9	高杯 : 陶質. 燒成 良好. 대각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 물손질 정면. 臺脚 접합부에 회전 목리흔 잔존.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 구연, 대각부에 자연유 박리. 짙흔 잔존	21
		5.5		12	蓋 : 陶質. 燒成 良好. 꼭지 일부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內外面 회청색. 속심 회색. 회전물손질 정면.	



圖面. 24 9號墳 出土遺物(1~5, 교란: 6~10) <1/3>

圖面. 24-3, 10(圖版. 22-6, 圖版. 23-4)은 臺附碗으로 陶質製이며 燒成은 보통이다. 3은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상태는 비교적 良好하다.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이 混入되어 있으며 内外面은 회색이다. 臺脚 接合부에 회전목리흔이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杯身內面과 臺脚 末端部에 燒成時에 생성된 靑흔이 남아 있다. 規格은 높이 9.7cm, 口徑 11.5cm, 底徑7.1cm이며 出土位置는 18이다.

10은 燒成이 不良한 瓦質燒成이다. 臺脚과 杯身이 상당 부분 결실되었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나 비교적 정선된 느낌이며 内外面은 회백색이다. 臺脚에는 1단의 長方形 透窓 4개가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0.5cm, 口徑 11.6cm, 底徑 7.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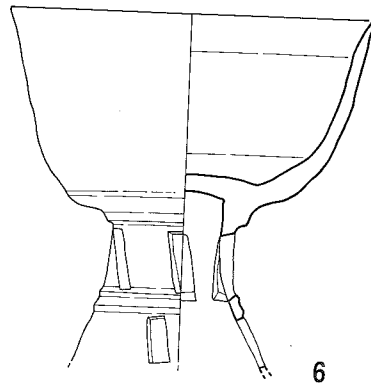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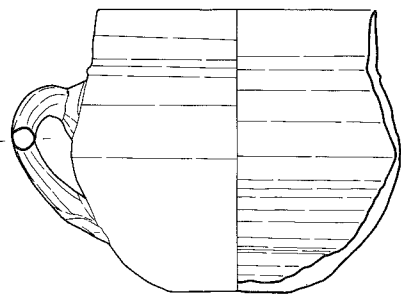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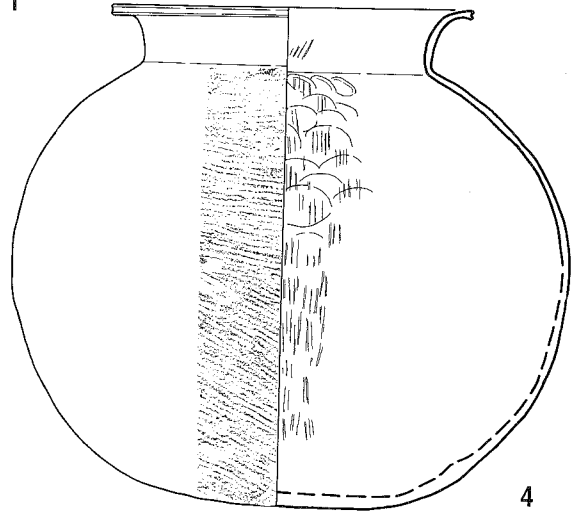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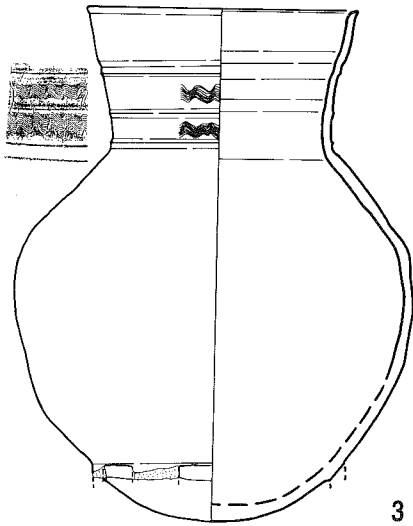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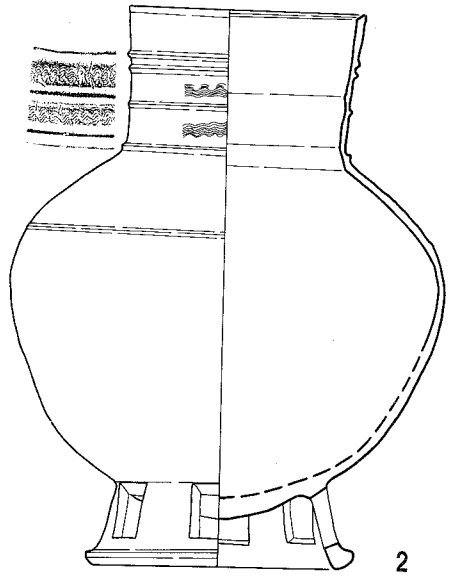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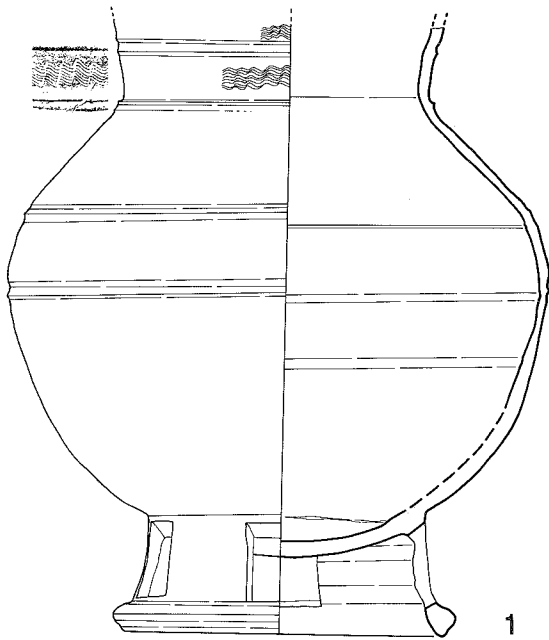
圖面. 24-5~9(圖版. 23-1,2,3 22-5,4)는 高杯인데 모두 燒成이 不良한 瓦質燒成이다.

개개유물의 상세는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			說 明	出土 位置
		높이	口徑	底徑		
24-5	23-1	13.4	11.6	9.6	陶質. 瓦質 燒成. 구연과 臺脚 약간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内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17
24-6	23-2	13.8	12	9	陶質. 瓦質 燒成. 배신부와 臺脚의 과손이 심함. 長石, 石英 混入. 内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배신과 대각 接合부에 회전목리흔 잔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
24-7	23-3	13.9	11.6	9.8	陶質. 瓦質 燒成. 구연부와 대각 일부 결실. 長石, 石英, 雲母 混入. 内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반시계방향).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
24-8	22-5	13	11.1	8	陶質. 瓦質 燒成. 臺脚 2/3정도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内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배신과 대각 接合부에 회전각기 후에 회전물손질. 전체 회전물손질.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4개씩.	.
24-9	22-4	12.6	10.8	8.5	陶質. 瓦質 燒成. 배신부 1/2 정도 결실. 長石, 石英 混入. 内外面 회백색, 속심 회백색. 배신부 내면에 불규칙한 물손질흔이 잔존.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3개씩.	.

圖面. 25-1~3(圖版. 24-3, 2, 1)은 陶質의 臺附長頸壺인데 1은 燒成 良好하며 口緣部와 口頸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内外面은 회청색이





圖面. 25 9號墳 出土遺物(1~4, 교란: 5·6) <1·5·6: 1/3, 2~4: 1/4>

다. 胴下部와 臺脚 일부에 회전목리흔이 남아 있으며, 表面에 自然油가 酸化剝離되어 있다. 臺脚에는 1단의 長方形 透窓 6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口頸部に 돌대를 기준으로 상·하로 9齒具의 集線 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4.5cm, 口徑 12.9cm, 底徑 12.5cm, 胴最大徑 21.4cm이며 出土位置는 13이다.

2는 燒成 良好하며 完形이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면 회청색을 띤다. 내면에는 拍子痕이 일부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臺脚은 1단의 方形 透窓 6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口頸部に 돌대를 기준으로 上·下 7齒具의 集線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다. 胴體部와 臺脚部에 자연유가 酸化剝離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9cm, 口徑 14cm, 底徑 13.5cm, 胴最大徑 23cm이며 出土位置는 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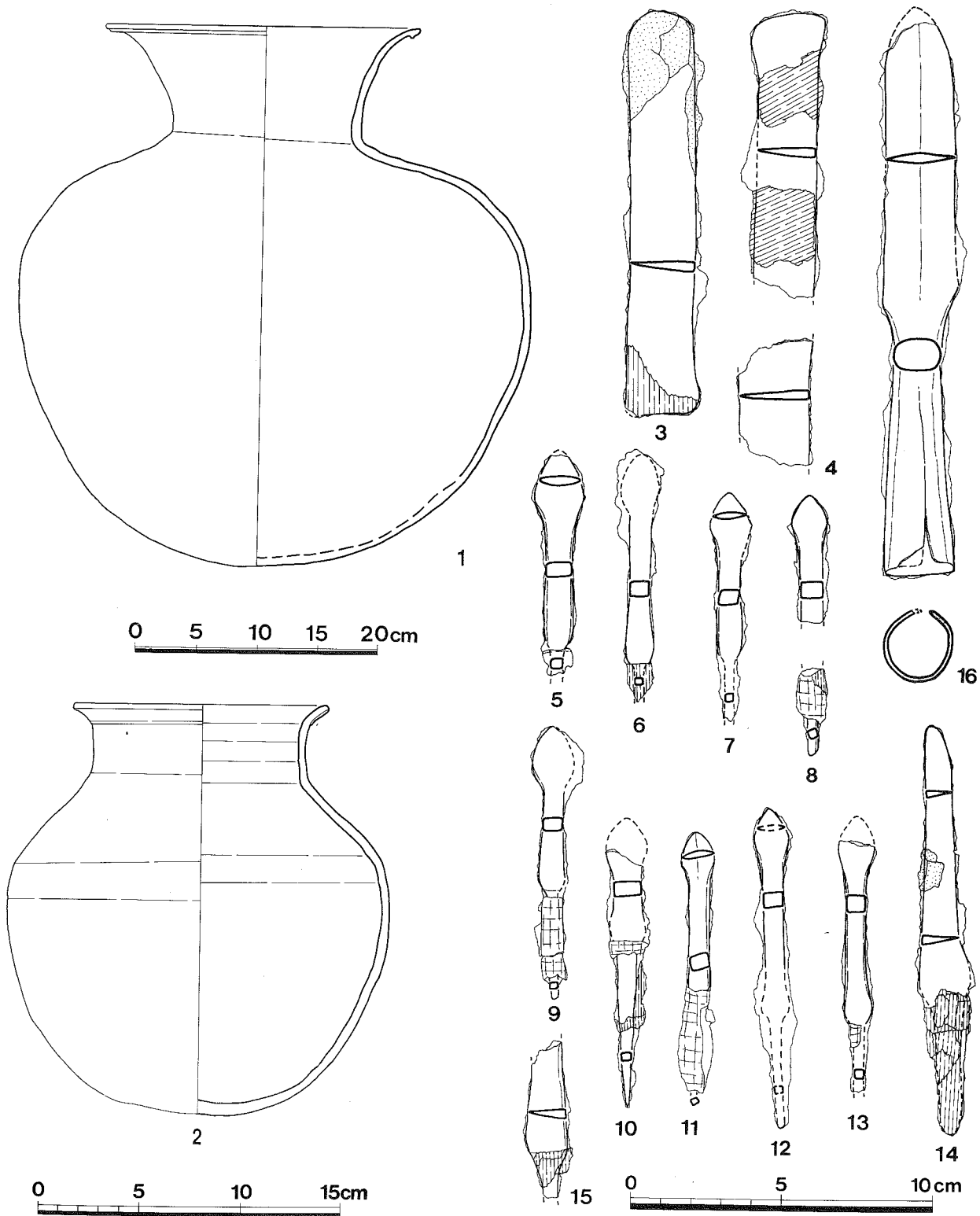
3은 燒成 良好한 편이며 臺脚은 완전히 결실되었고 口緣部도 일부가 훼손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등이 관찰되며 內外면 회청색을 띤다. 외면에 전체적으로 회전목리흔이 보이며 내면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臺脚의 透窓은 남은 흔적으로 보아 상단에 7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口頸部に 돌대를 기준으로 상·하 9치구의 집선 파상문을 施文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28.5cm, 口徑 14.5cm, 胴最大徑 21.5cm이며 出土位置는 15이다.

圖面. 25-4(圖版. 24-4)는 燒成이 不良한 瓦質製의 短頸壺이다. 口緣部와 胴體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면은 회색이다. 전체적으로 繩蓆文을 비스듬하게 平行打捺하였다. 規格은 높이 27.5cm, 口徑 19cm, 胴最大徑 26.5cm이며 出土位置는 16이다.

圖面. 25-5(圖版. 23-5)는 陶質製의 椀형토기인데, 燒成은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면은 회청색이다. 低部에 시계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把手의 단면은 圓形이며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1.2cm, 口徑 11cm, 底徑 4.5cm이다.

圖面. 25-6(圖版. 23-6)은 陶質製의 臺附碗으로서 臺脚의 末端部가 결실되었다. 燒成은 良好한 편이며 胎土에 長石 및 石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면은 회청색이다. 臺脚은 上·下 交叉된 長方形 透窓 5개씩이 배치되어 있다. 口緣部와 臺脚부분에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잔존높이 14cm, 口徑 14.4cm이다.

圖面. 26-1(圖版. 25-1)은 陶質製의 大壺인데 燒成은 良好한 편이며 口緣部와 胴體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으며 內外면 회청색이다. 胴體部에 拍子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整面하였다. 規格은 높이



圖面. 26 9號墳 出土遺物(1·3~16, 교란: 2) <1: 1/5, 2: 1/3, 3~16: 1/2>

45.4cm, 口徑 26.5cm, 胴最大徑 43cm이며 出土位置 12이다.

圖面. 26-2(圖版. 25-2)는 陶質製의 短頸壺로 燒成은 不良한 편이다. 胴體部 일부 結實되었고 胎土에 長石, 石英, 雲母 등이 混入되어 있고 內외면은 灰白색이다. 口頸部는 거의 直立하다가 口緣段부분에서 外反한다. 規格은 높이 20.9cm, 口徑 12.7cm, 胴最大徑 19.3cm이다.

b. 鐵器

圖面. 26-3, 4(圖版. 25-4, 5)은 鐵片으로 用度는 分명하지 않다. 그러나 끝부분을 가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아마도 鐵鋌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면은 삼각형으로 鐵刀의 형태를 띄고 있어 大刀의 파손품을 再加工했을 가능성이 있다. 3은 全長 13.8cm, 幅 2.2cm, 두께 0.3cm, 重量 34.7g이다. 出土位置 : 2

4는 일부가 結實되었다. 規格은 잔존길이 14.5cm, 幅 2.5cm, 두께 0.3cm, 重量 32g이다. 出土位置 : 2

圖面. 26-14, 15(圖版. 26-3, 4)는 鐵刀子이다. 14는 完形으로 身部 단면 삼각형이며 柄部에 목질흔 부착되어 있다. 規格은 길이 14.2cm, 幅 1cm, 두께 0.2cm, 重量 16.6g이다. 出土位置 : 5

15는 先端부와 柄部가 일부 結實되었으며 단면은 삼각형이다. 柄部에 목질흔이 일부 잔존한

圖面. 26-5~13(도판 26-5~13)은 철촉으로 세부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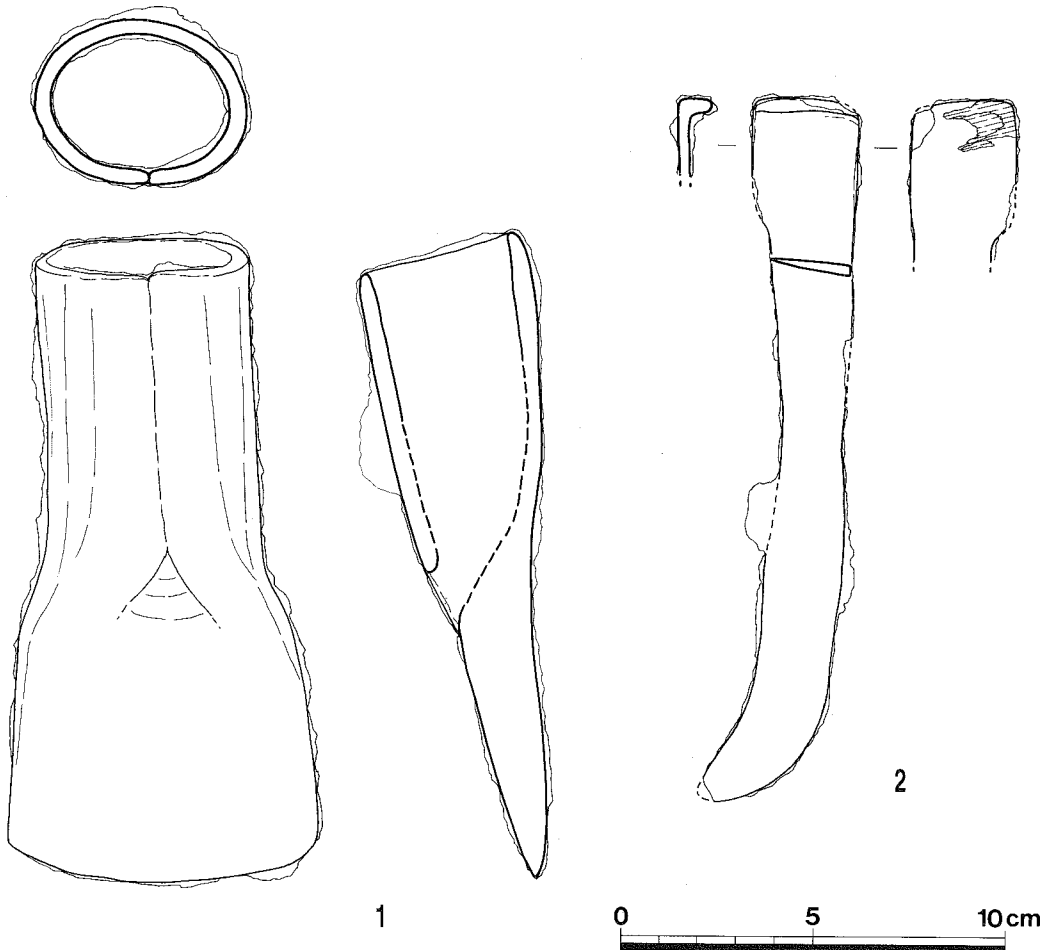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 格(cm,g)			說 明	出土 位置
		길이	幅	重量		
26-5	26-12	(7.5)	1.3	10.7	鏃身과 莖部 일부 結實. 鏃身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방형.	9
26-6	26-8	(8.2)	1.2	14.5	莖部 일부 結實. 鏃身단면 볼록렌즈형. 莖部단면 方形.	9
26-7	26-9	(7.7)	1.3	10.2	莖部 일부 結實. 鏃身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9
26-8	26-13	(7.5)	1.2	11.4	莖部 일부 結實. 鏃身단면 볼록렌즈형. 莖部단면 방형. 莖부에 白樺樹皮痕 잔존.	9
26-9	26-6	9.5	1.5	11.6	完形. 鏃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방형. 莖부에 白樺樹皮痕과 木質痕 잔존.	9
26-10	26-10	(9)	1	13.1	鏃身部 結實. 莖部 단면 方形. 莖부에 白樺樹皮痕 잔존	7
26-11	26-7	(9)	1.1	11.1	完形. 莖部 일부 結實. 鏃身部 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단면 方形. 莖부에 白樺樹皮잔존	9
26-12	26-5	11	1.2	16.8	完形. 鏃身단면 볼록렌즈형. 莖部 방형.	5
26-13	26-11	(8.5)	1.2	9.4	鏃身 일부 結實. 莖部단면 方形. 莖부에 白樺樹皮흔 잔존.	9

다. 規格은 잔존길이 5.3cm, 幅 1cm, 두께 0.3cm, 重量 8.2g이다. 出土位置 : 8

圖面. 26-16(圖版. 26-1)은 先端部가 일부 결실된 鐵鎗이다. 身部의 단면 마름모형이다. 規格은 잔존길이 19cm, 幅 2.5cm, 두께 0.3cm, 重量106.6g이다. 出土位置 : 4

圖面. 27-1(圖版. 25-3)은 鍛造鐵斧로 完形이다. 鑿部의 내면에 목질흔이 일부 남아 있다. 鑿部의 단면은 타원형이며 전체길이에 비하여 鑿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規格은 길이 17.2cm, 幅 8cm, 厚 2cm, 重量941g이다. 出土位置 : 1

圖面. 27-2(圖版. 26-2)은 鐵鎌으로 完形이다. 단면은 삼각형인 刃部는 사용에 의해 마모된 흔적이 남아 있다. 基部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規格은 길이 19cm, 幅 2cm, 두께 0.3cm, 重量 46.1g이다. 出土位置 : 3



圖面. 27 9號墳 出土遺物(1·2) <1/2>

## IV. 考 察

이번에 조사된 中垆古墳群은 유적의 극히 일부분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遺蹟에 대한 歷史的 性格과 考古學的 意味 부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三韓時代에 치우쳐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中垆古墳群의 調査는 下垆 遺蹟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遺構들이 파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遺物들도 盜掘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공반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때문에 이번 발굴조사를 통한 중대고분군의 성격규명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간략하나마 중대고분군의 遺構와 遺物을 檢討하여 중대고분군의 시간적 편년과 하대유적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編年과 年代

中垆古墳群의 年代를 알 수 있는 絶對的 資料는 없지만 嶺南地域의 토기편년에 기초하여 중대고분군의 시간적 위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된 遺構는 모두 豎穴式 石槨墓인데 대부분이 파괴되어 전모를 알 수 없으므로 遺構의 特徵만을 소개한다.

조사된 9기의 석곽 중에서 遺構의 형태가 완전한 것은 5號와 6號墳인데 그나마 6호분은 소형 석곽으로, 이 시기 유구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사된 총 9기의 석곽중 墓制形態를 알 수 있는 遺構는 5號墳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5號墳은 양쪽의 단벽부분에 의하여 遺物을 副葬하기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한 쪽 공간에는 小形의 高杯類와 또 반대편 공간에는 비교적 대형의 壺類를 副葬하고 있다. 遺構의 상면을 보면, 遺物이 부장된 부장공간에는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피장자가 안치된 유구의 중간부분에만 활석을 한 벌 깔고 있다. 그리고 벽석은 한 쪽 단벽이 弧狀이고, 반대쪽 단벽이 직선적인 형태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소형 석곽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高杯類와 臺附長頸壺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蔚山地域의 토기편년안

6) 洪濬植, 「古墳文化를 통해 본 6~7세기대의 사회변화」, 『韓國古代史論叢』7, 1995.

金龍星,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35, 韓國考古學會, 1996.

安在浩, 「古墳의 編年」, 『金海禮安里古墳群Ⅱ』, IV. 考察, 1993.

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中塚古墳群의 編年을 위해서는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기편년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영남지역 연구성과에 중대유적의 출토유물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중대고분군의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中塚古墳群의 편년을 위하여 가장 유효한 자료는 出土量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高杯와 臺附長頸壺라고 할 수 있다. 중대고분군은 이미 조사전에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물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란된 부분에서 수습된 토기류들 중에 시기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同一墳의 출토품으로 인정하고, 단 시간적인 공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란에 의한 다른 遺構로부터의 移入品으로 판단하여 편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高杯類는 모두 뚜껑받이 턱이 있는 有蓋式 高杯들로서 2段 透窓高杯의 경우에는 透窓이 上下交互하는 형태이며, 臺脚의 중간부분에 2조의 돌대로서 대각을 2단으로 구분한 二段脚이 대부분이다. 出土高杯類 중 형태파악이 가능한 15점을 대상으로 보면 고배류들은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제1형의 것은 3號墳 출토의 高杯類들로서 杯身이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으며 杯身部와 臺脚部の 접합부분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臺脚部の 형태는 전체적으로 직선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대각은 2조의 돌대에 의하여 兩分되어 있으나 전단계의 三段脚의 잔재로 볼 수 있는 1조의 돌대가 臺脚段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다.

제2형의 高杯는 4호분과 9호분출토의 고배들로서, 1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각의 길이가 길어지고, 杯身部는 전체 높이면에서 1형보다 얇아지고 있다. 대각은 전체적으로 직선적이며 杯身部の 대각의 접합부위가 1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제3형은 5호분출토의 고배로서 전체적으로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뚜껑이 있다는 점에서 1, 2형과 구별된다. 대각부분도 소형화되고 脚段部分이 角을 지면서 바깥쪽으로 뺏어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6세기대의 短脚高杯로 移行하고 있는 느낌이 완연하다.

臺附長頸壺는 口頸部の 돌대 배치방법과 胴體部の 돌대의 위치를 근거로 시간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臺附長頸壺의 시간적인 속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형상의 속성은 口頸部の 분할 방법과 胴體部の 돌대위치, 대각의 형태, 그리고 문양 등이다.

개개속성의 시간적인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口頸部の 분할방법은 口頸部の 中位部分에 1, 2조의 돌대를 施文하여 口頸部를 2등분하는 것에서, 돌대를 이용하여 口頸部를 3분하는 형

식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동체부의 돌대 시문위치는 胸中位에서 胸上位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각의 형태는 1단 투창에서 2단 투창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구경부에 시문되는 문양도 파상문에서 점차 다양한 문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인 변화과정을 中垜古墳群의 臺附長頸壺에 적용해보면 중대고분군에서 조사된 遺構의 相對編年은 다음과 같다.

먼저 3號墳의 臺附長頸壺의 특징을 보면 대각은 1단이며 구경부에 2조의 돌대를 돌려 口頸部를 양분하고 있다. 그리고 동체부의 돌대는 동중위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號墳의 臺附長頸壺는 가장 古式에 해당된다.

9號墳의 대부장경호는 구경부를 돌대로서 3분하여 2, 3단에 波狀文을 시문하고 있다. 그리고 동체부의 돌대가 점차 동상위로 이동하고 있음이 시기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號墳의 臺附長頸壺는 9號墳출토 대부장경호와 전체적으로 기형이 유사하며 대각이 2단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며 구경부의 문양에 點圓文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고배와 대부장경호의 이러한 변화과정은 기존의 고배의 臺脚段과 구연부의 변화과정을 통한 유물의 검토를 행한 결과와도 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으로 기존의 편년안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볼 때 중대고분군은 시기적으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며 축조순서는 3號墳 → 9號墳 → 5號墳의 순서로 보인다. 4號墳은 9號墳과 나란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아 9號墳과 거의 동시기로 볼 수 있다. 7號墳은 유물의 속성상 臺附長頸壺의 경우 圖面. 19-1은 구경부를 2조의 돌대로서 양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단 고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굴갱에서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7號墳의 시기를 확정하는 자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號墳출토유물중 편년에 참고될 수 있는 유물은 圖面. 18-3의 臺附碗 1점이 있을 뿐이다. 圖面. 18-3의 臺附碗은 대각단의 형태에서 5號墳의 고배에서 보이는 대각단의 형태에 가깝다. 그러므로 7號墳은 5號墳과 시기적으로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8號墳은 대체로 고배로 볼 때 9號墳과 동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편년을 기존의 편년안에 대입해 보면, 중대고분군의 대략적인 축조시기는 대체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대에 해당한다. 즉 예안리고분군의 편년안 VI, VII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홍보식의 편년안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즉 3호분의 시기는 5세기 말정도이며 가장 늦은 시기로 보이는 5호분은 6세기 2/4분기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된다.

## 2. 遺蹟의 性格



中垆古墳群의 성격에 대해서는 三韓時代에서 三國時代로 이어지는 대단위 고분유적으로서의 하대유적과 관련 지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대고분군을 포함한 下垆遺蹟은 아직까지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한 유적내의 시기별, 기능별 입지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단지 釜山大學校 博物館이 조사한 하대 '가' 지구에서 楮里古墳群으로 이어지는 분묘군의 시간적 연속성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87년도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과정에서 주거지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나 그 규모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하대 '나' 지구와 중대고분군과 같이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벗어난 불규칙적인 배치형태를 보이면서 확인되는 일련의 분묘군들은 下垆遺蹟의 전체적인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며, 이들 중소형 분묘군의 배치형태는 이 지역을 근거로 하는 단위집단의 사회구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벗어난 분묘군으로 확인된 하대 '나' 지구와 중대고분군의 경우,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모두 중소형급의 유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산구릉의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들과는 분묘의 입지면에서 구별된다고 하겠다. 즉 산구릉의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들이 모두 정식조사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대 '가' 지구의 발굴성과와 저리고분군의 대형봉토분을 고려할 때 하대 '나' 지구나 중대고분군과는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대 '나' 지구의 분묘들도 비록 적은 수의 유구가 조사되어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모두가 5세기 전반대의 소형 목곽묘라는 점에서 일단 중대고분군과 일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동일 지역내의 분묘군의 규모면에서 나타나는 양 묘역간의 차이는 아마도 지역 집단내에서의 階層化와 관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분묘입지의 차별성에 입각한 계층분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三韓時代의 木槨墓段階부터 제기된 바 있다. 즉 삼한시대의 목곽묘단계부터 이미 입지의 優越性에 의하여 집단내의 有力首長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sup>7)</sup>.

이 단계(삼한시대)의 묘역의 분할은 특정 대형분묘가 우월한 입지조건을 선점하고 나머지의 중소형분들은 주위를 에워 쌓고 있는 식으로 분묘가 배치됨으로서 동일묘역내에서 분포하고 있는 양상은 극히 一元的이라고 하겠다.

7) 申敬澈, 『金海 大成洞·東萊 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19, 1995.

반면에 5세기대 이후의 분묘에 보이는 계층간의 묘지사용에 있어서의 분립양상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三韓時代의 集團墓域으로서의 一元的 묘지사용이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계급간 묘역의 분리라고 하는 극단적 階層分離現象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묘역의 극명한 분리현상은 계층분화의 정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자료로서 집단간의 階層分化的 尺度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단위집단내의 계층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단위유적 전체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하대유적의 사회구성문제나 계층분화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감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중대고분군의 경우 채집되는 土器類 중에는 기와 두께에 버금가는 大壺片이라던지 筒形器臺片 등 소형분에 매납되지 않는 기종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소형묘의 묘역으로 치부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봉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동일시기의 楮里古墳群과 비교된다고 하겠다. 대형봉토분이 입지하고 있는 楮里古墳群이 지역수장층의 묘역이라고 한다면, 中垆古墳群의 분묘들은 아마도 집단내의 중간계급의 집단묘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시기의 양지역의 이러한 유구의 규모상 차이는 역시 단위집단의 계층분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sup>8)</sup>.

울산지역에는 삼국시대의 유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된 유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조사된 유적들조차도 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주변의 관련유적을 언급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중대고분군은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하대유적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하대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속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성과로서는 5, 6세기대의 下垆遺蹟의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즉 하대유적의 6세기대의 분묘가 분포하고 있는 楮里古墳群은 전혀 학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하대 '나' 지구는 삼한시대 木槨墓 1기와 5세기대 전반대의 木槨墓 4기가 조사되었다<sup>9)</sup>. 이러한 측면에서 하대유적

8) 墓域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集團間的 優劣인가, 單位集團間的 階層化인가에 대한 문제는 昌寧 桂城古墳群의 報告書에 이미 언급된 바 있다. 洪漣植의 집단간 우열과 全玉年の 계층화의 논리를 놓고 볼 때, 中垆古墳群의 경우는 계층화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全玉年, [IV. 考察], {昌寧桂城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洪漣植, 註 6)의 前掲文.

9)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垆遺蹟 - 古墳 I』, 1997.

에 있어서 5, 6세기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대유적의 성격을 울산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대유적에 대한 이러한 중심고분군으로서의 성격규정은 저리고분군일대에 보이는 원형 봉토분을 비롯한 대형고분군 뿐만 아니라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대형 분묘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울산지역 중심고분군으로서 하대유적은 아직도 많은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1992년 하대유적이 처음으로 발굴조사되면서 三韓時代 울산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소국으로서 ‘于尸山國’의 중심지역일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는 하대 가지구에서 조사된 대형 목곽묘들과 다량의 출토유물들, 그리고 한반도지역에서 최초로 삼한시대의 銅鼎이 확인됨으로서 이 일대에 삼한시대에 거대한 정치세력이 위치하고 있었음이 입증됨으로서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울산지역은 일반적으로 삼한시대의 辰韓地域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우선적으로 新羅圈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그러나 『三國史記』 初期記錄처럼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울산지역이 신라권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三國史記』 初期記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정치체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않지만 울산과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정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

울산지역과 경주지역의 문화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소위 말하는 ‘慶州式 木槨墓<sup>11)</sup>와 蕨手文鐵銼, 有刺利器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遺構와 遺物들은 그 분포범위가 울산·경주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문화적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sup>12)</sup> 된바 있으므로 울산과 경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물론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울산과 경주지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유물을 포함한 문화적

10) 「三國史記」 地理志와 「居道列傳」의 기록에서 A.D 1세기대인 脫解王와 破婁王代에 斯盧國의 동남부 일대가 사로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李鍾旭, 「斯盧國과 辰韓의 政治의 性格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80.

李炯佑, 「斯盧國의 東海岸進出」, 『建大史學』8, 1993.

11) 申敬澈, 「金海 大成洞·東萊 福泉洞古墳群 點描」, - 金官加耶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1995.

金亨坤, 『新羅前記古墳의 一考察」, - 中山里遺蹟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

속성들 중에서 교역에 의하여 전이가 가능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후자의 경우가 교역에 의해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이러한 차원에서 慶州式 木槨墓와 蕨手文鐵鏃, 有刺利器 등이 경주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들 자료가 경주지역의 중심분묘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九政洞遺蹟의 조성시기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울산과 경주지역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로 3세기 후반대에서, 4세기 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삼한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하대유적과 중산리유적을 들 수 있다. 이들 양 유적에서 조사된 문화내용은 경주지역의 현재까지 조사성과와 비교할때 울산과 경주지역은 거의 대등한 문화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삼한시기까지 양지역은 대등한 별개의 정치체로서 양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지역의 균형은 3세기 후반대 이후 급속한 와해되고 신라의 절대적 우위속에 울산지역이 편입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울산지역이 경주권으로 편입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삼국사기에는 A.D 1세기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록은 신뢰하기

---

12) 金榮珉,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 洛東江 東西岸地域의 比較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

13)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道具類 및 容器類 등은 交易에 의하여 얼마든지 轉移가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일부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유물들은 일반 생활용구라고 하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여기서의 政治的 關係라는 의미는 蔚山地域의 新羅圈에 대한 정치적인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15)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고대사의 연구경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昔脫解의 근거지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견해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紀年問題의 조정을 통하여 기원 1세기대의 首路記事와 脫解記事가 3세기대의 기록이라는 점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다면 3세기 후반대에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석탈해와 김해세력으로 대표되는 수로의 쟁패의 결과, 석탈해가 신라에 투항하는 기록들과 부합되므로 최근의 이와 같은 견해들은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와 함께 주목된다.

金哲垞, 「新羅 上古世界와 그 紀年」, 『歷史學報』17·18, 1962.

金哲垞, 『韓國古代史研究』, 1990.

姜鍾薰, 『3~4세기 斯盧國의 辰韓統合過程에 대한 考察, - 上古紀年の 檢討와 관련하여-』, 서울大學校大學院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1.

宣石悅, 『《三國史記》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釜山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힘들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울산지역의 고대사 복원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4세기대 이후의 하대유적의 성격은 기존 삼한시대의 소국규모의 완결된 사회구조에서 신라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체에 편입됨으로서 신라의 남하정책의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상정된다. 이러한 점은 하대유적이 입지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대유적에서 4세기대의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5세기대의 하대유적은 4세기대의 이러한 군사적 요충으로서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성격은 아마도 부산지역의 대표적 고분군인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성격이 신라화하기 시작하는 5세기 전반대까지 계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하대유적은 5세기 전반대까지 신라의 세력권이 부산 김해의 伽耶圈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세기 전반대 이후 부산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의 동하류역이 신라권에 완전히 편입되고난 후의 하대유적은 신라의 지방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편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조사된 중대유적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격변의 시기가 경과하고 난 이후에 해당하는 데 동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울산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의 5, 6세기대의 고분군 분포밀도로 볼 때, 울산지역의 인구밀도는 신라 및 가야지역권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5세기대 이후 당시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울산지역이 신라지역 중에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삼국시대의 울산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국가가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변경은 수시로 변화되었지만 울산지역은 신라지역에 편입된 이래 왜와의 마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외부의 공격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지역은 신라의 통일전쟁 과정에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5, 6세기대의 고분군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중대고분군을 중심으로한 울산지역의 고대문화에 대하여 개괄적을 살펴보았다. 중대유적을 포함한 하대유적은 유적의 전면에 펼쳐진 넓은 평야를 주요경제기반으로 하는 안정된 농경사회였으며,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제 집단들을 통괄하는 중심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대유적내에서의 중대고분군 위치에 대한 해결점은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지만 楮里古墳群에서 보이는 대형원형봉토분을

생각한다면, 중대고분군의 被葬者들은 아마도 단위집단내의 중간관리계층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즉 하대유적의 주요지배계층의 분묘는 산의 사면을 따라 배치되고 그외의 계층은 그 보다 아래지역에 분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고분군은 하대유적을 구성하는 단위집단내의 중간관리계층의 존재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中垆古墳群의 발굴성과를 살펴보았다. 발굴지역이 협소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이 짧아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中垆古墳群에서는 3,000여 평 이상의 유적중에서 총 9기의 竪穴式 石槨묘가 조사되었고 104점의 遺物이 수습되었다. 수치상에서도 드러나듯이 극히 부분적인 조사였던 관계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대지역이 가지는 學術的인 價値를 고려한다면 이번의 조사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기존에 알려져 왔던 下垆遺蹟=삼한시대의 대규모 유적이라고 하는 등식에서 進一步하여 下垆遺蹟이 先史時代이래 三國時代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의 유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埋藏文化財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考古學的인 자료들이 집적되지 못하여 학술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埋藏文化財를 연구하는 機關과 博物館의 設立 등 文化財 專門研究機關이 생겨나서 蔚山文化의 진면목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의 조사결과보고서는 蔚山大學校 博物館이 설립후 처음으로 학계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질정을 부탁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한다.

# 圖 版





圖版 1. 下垜遺蹟 全景(1), 中垜 遺蹟 全景(2)



圖版 2. 遺構露出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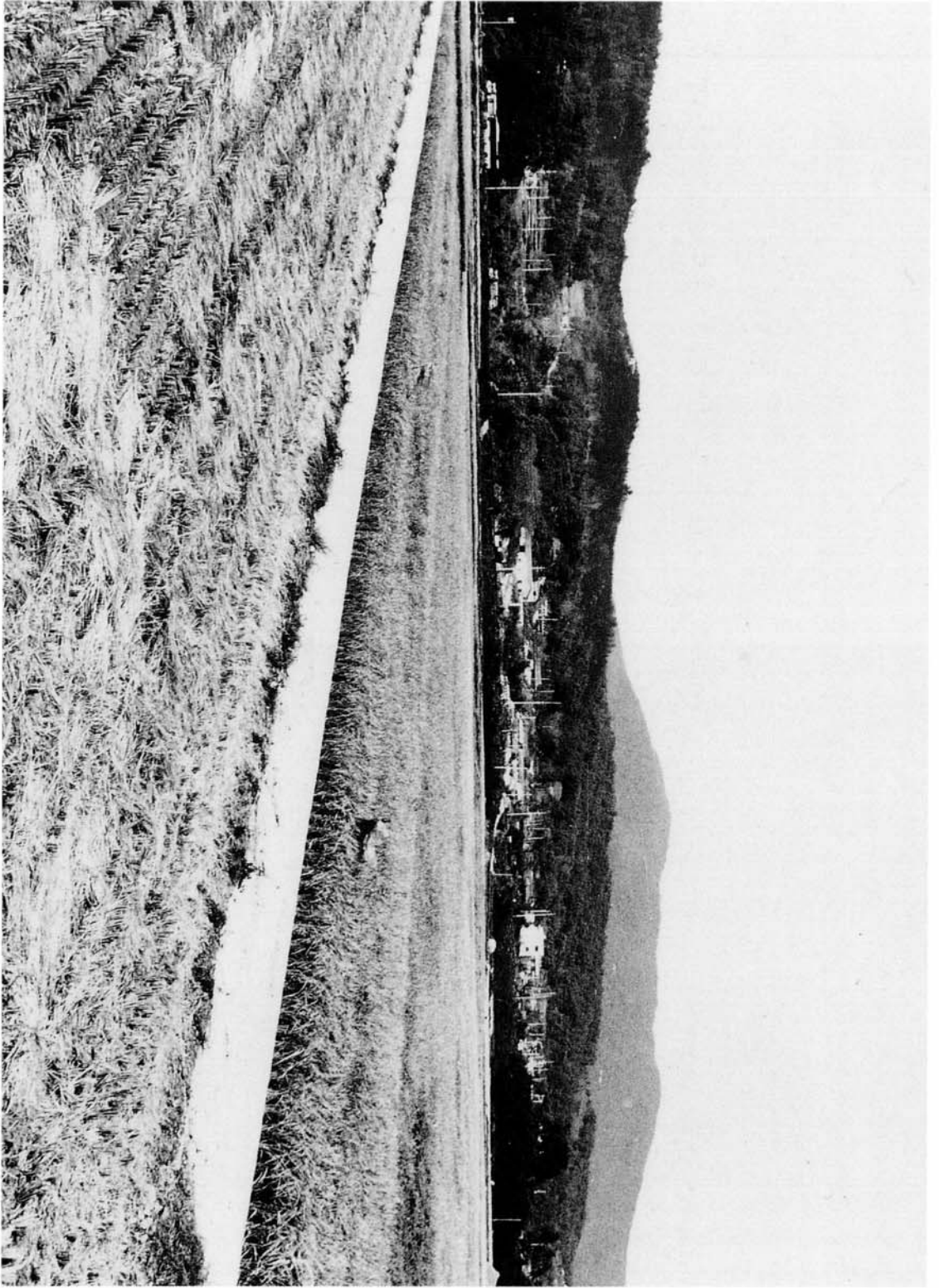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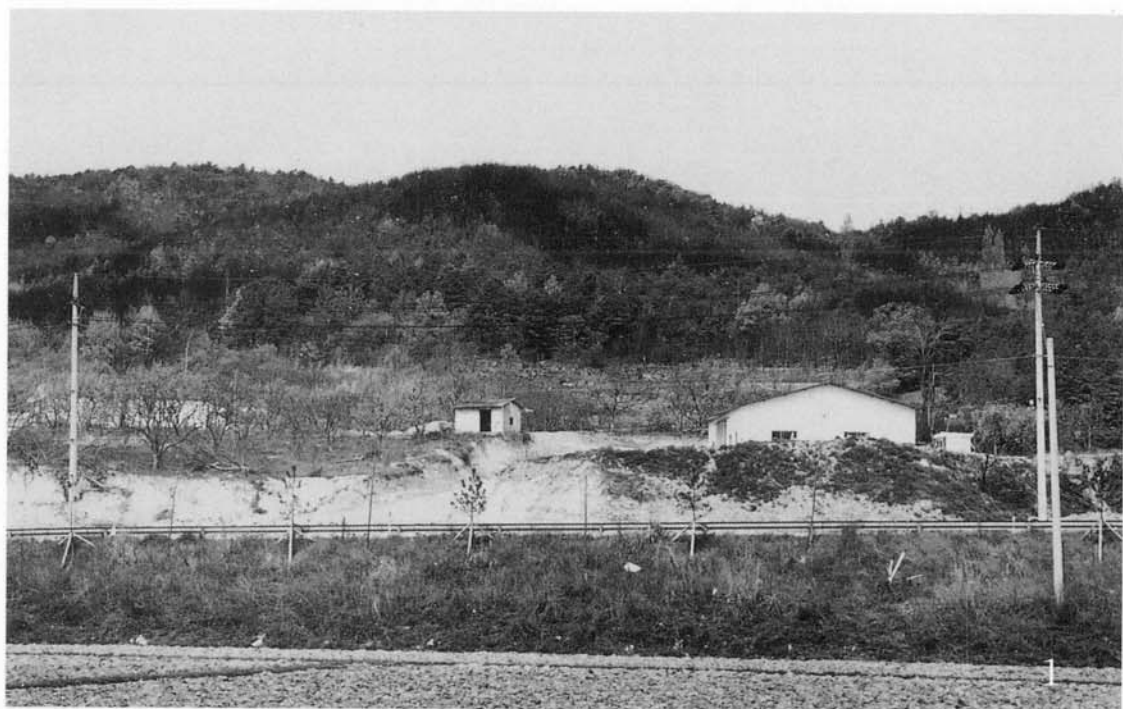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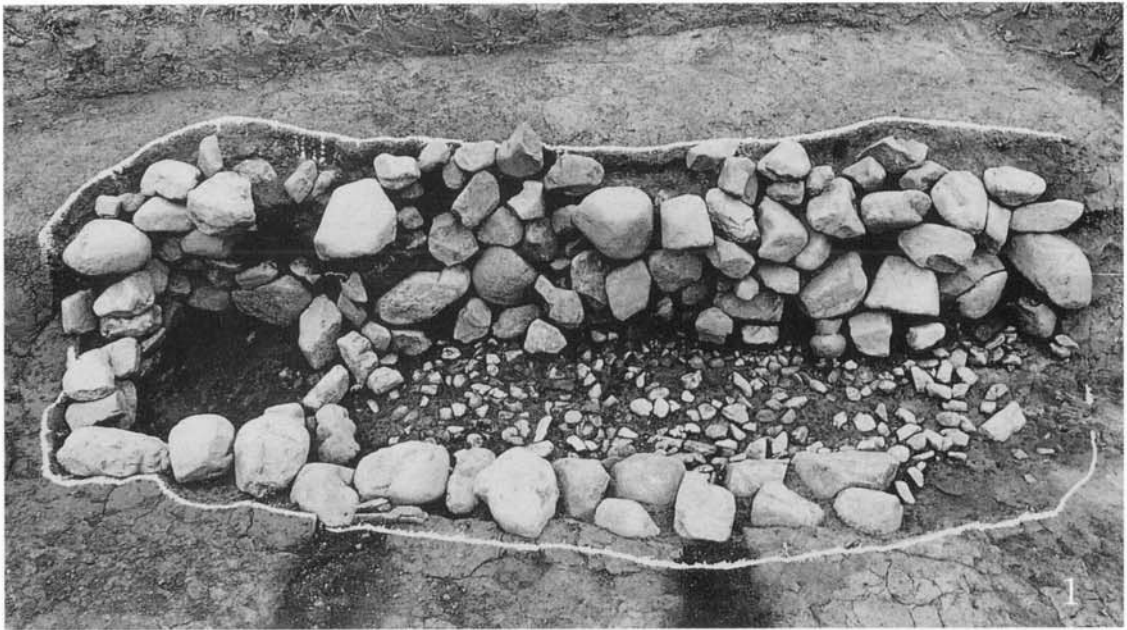
圖版 3. 出土遺物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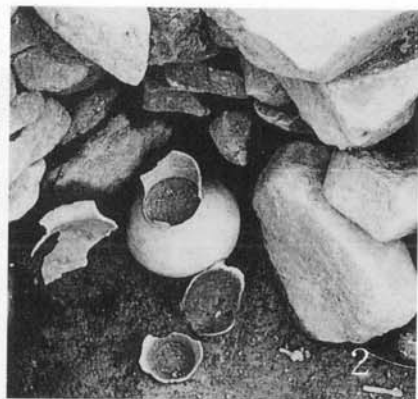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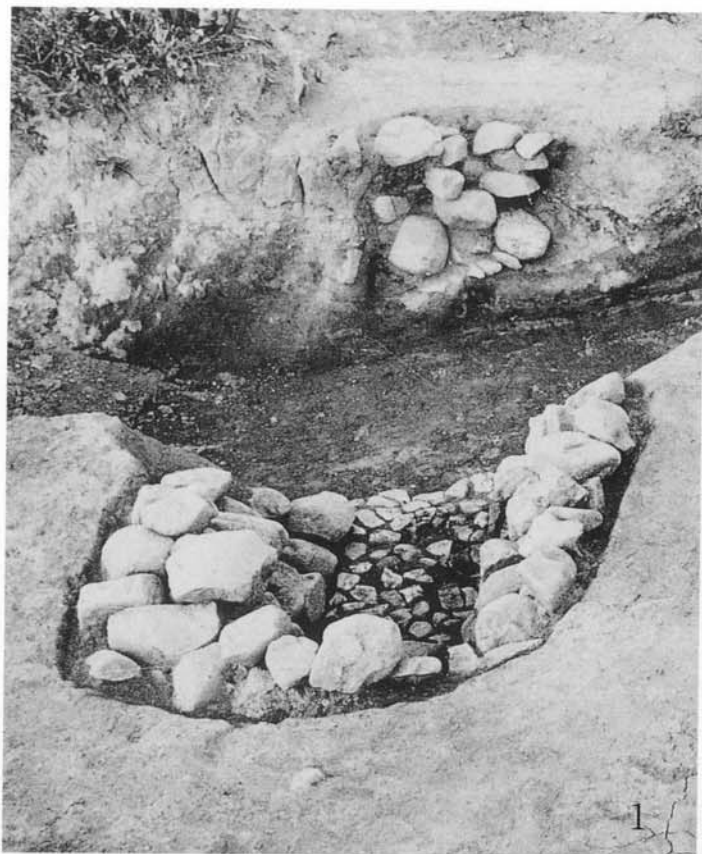
圖版 4 遺蹟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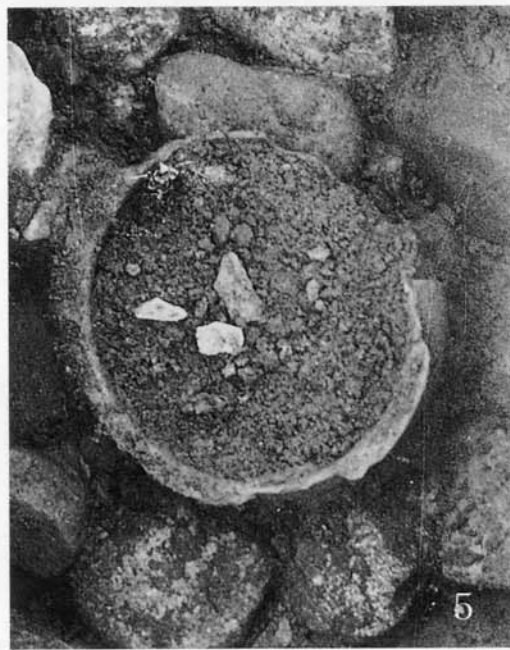
圖版 5. 遺蹟 近景(1) 및 1號墳 全景(2, 3), 2號墳 全景(4, 5)



圖版 6. 3號墳 全景(1, 2), 西北모서리(3), 遺物出土狀態(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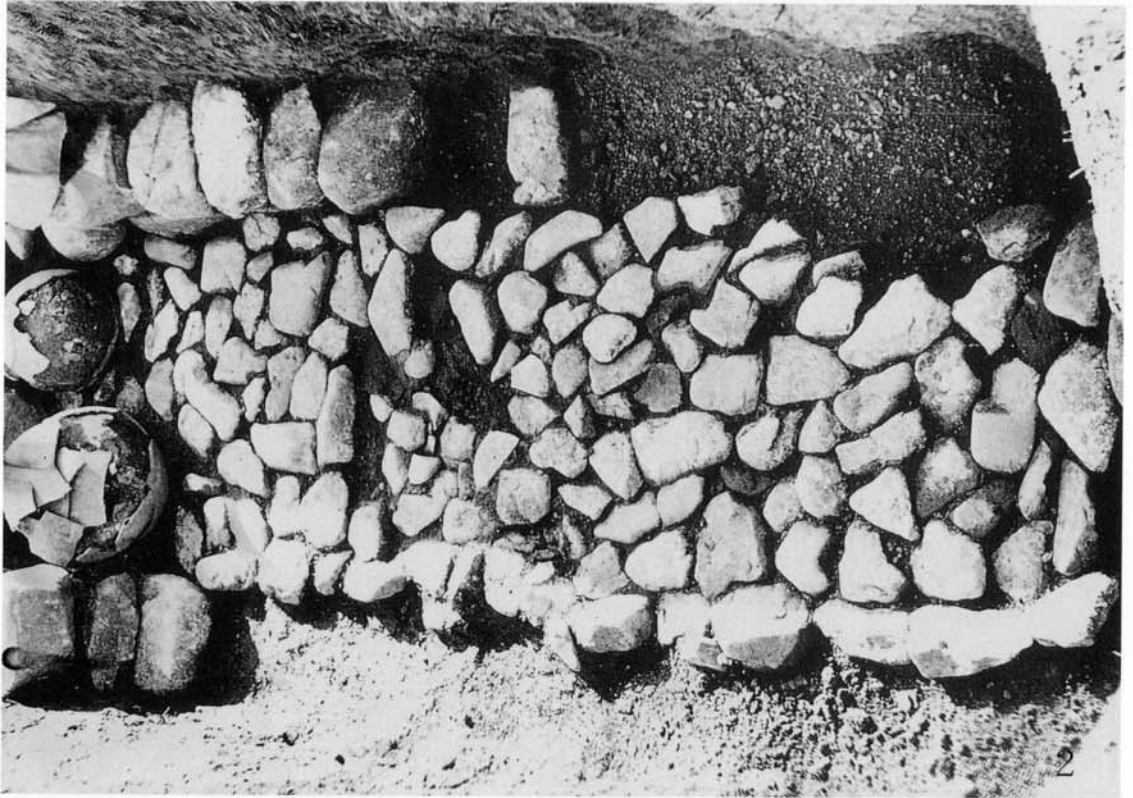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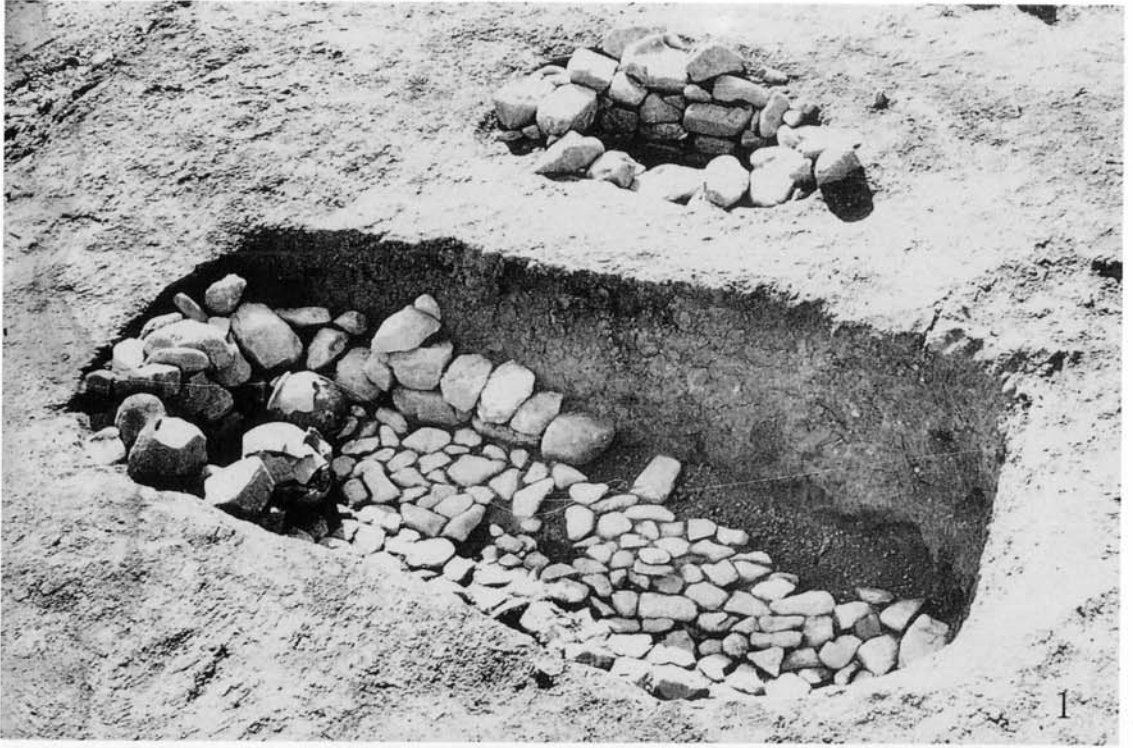


圖版 7. 4號墳 全景(1), 遺物出土狀態(2, 3, 4)



圖版 8. 5號墳 全景(1), 遺物出土狀態(2, 3), 6號墳 全景(4), 遺物出土狀態(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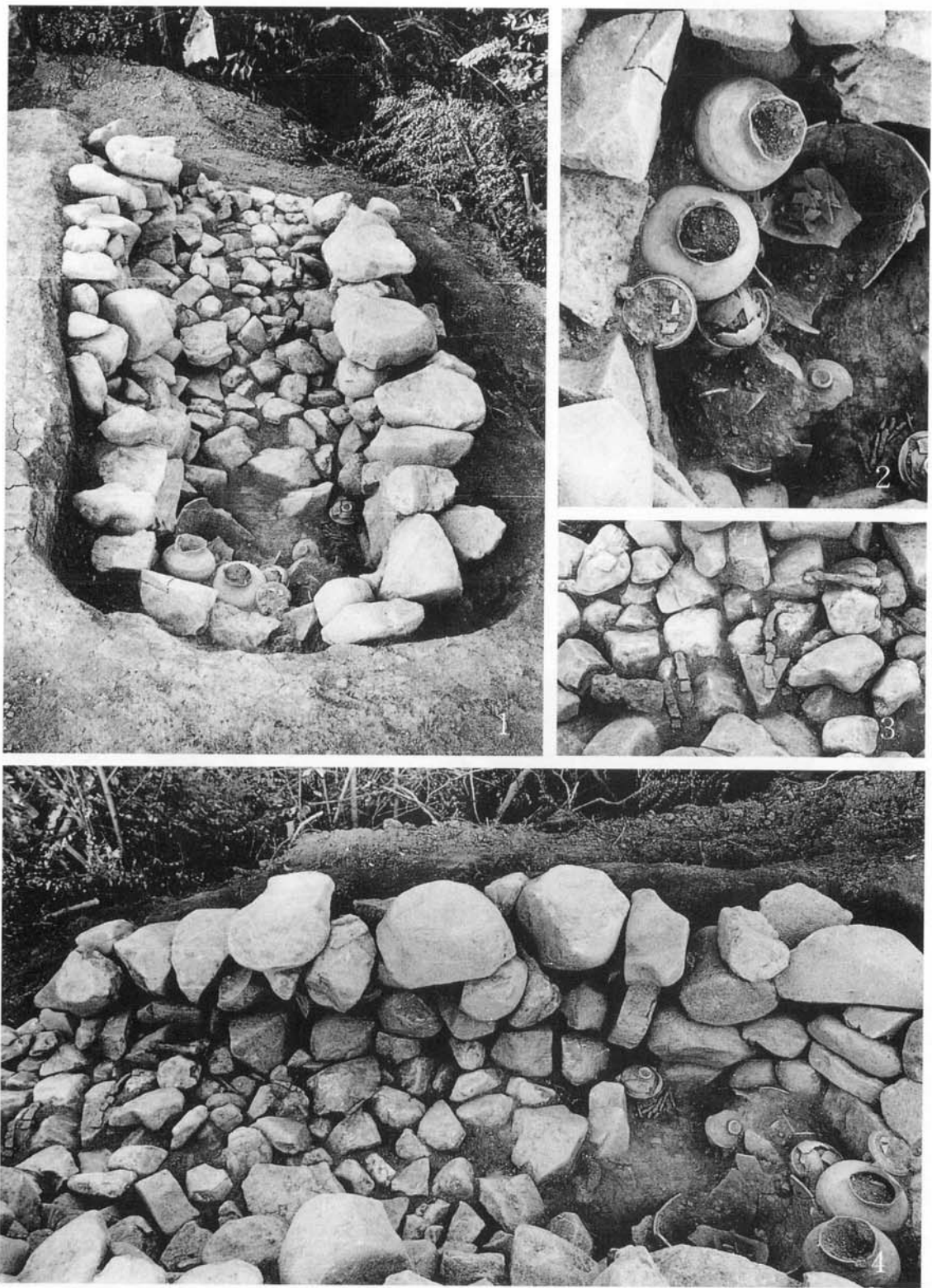




圖版 9. 7號墳 全景(1), 屍床노출모습(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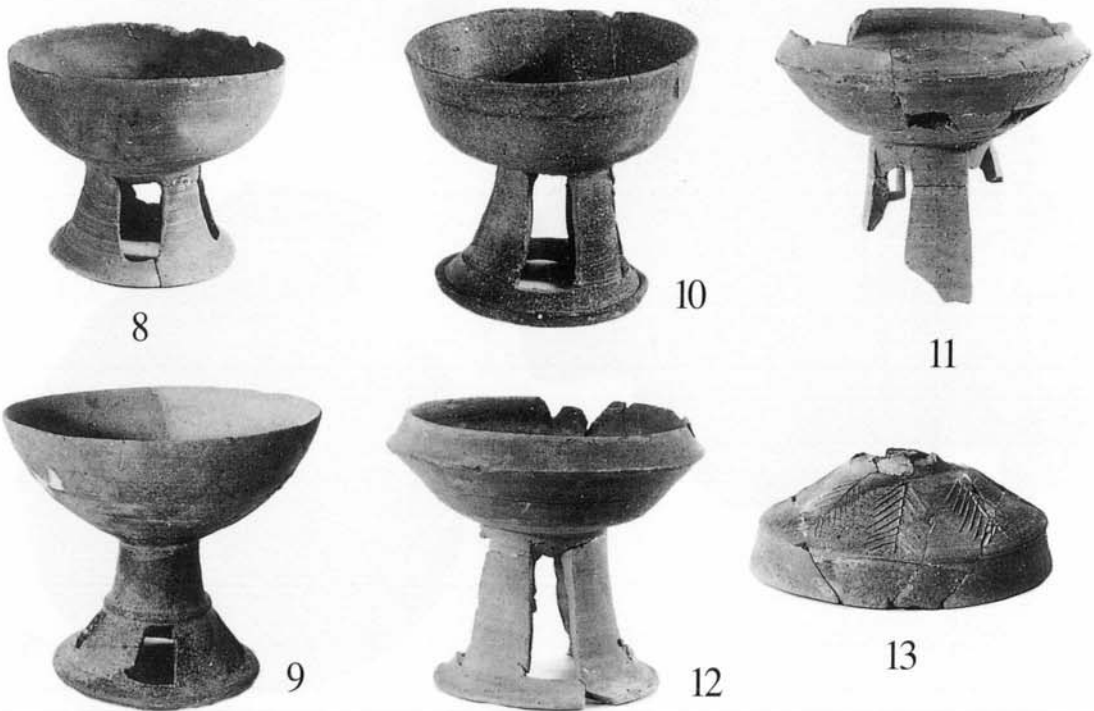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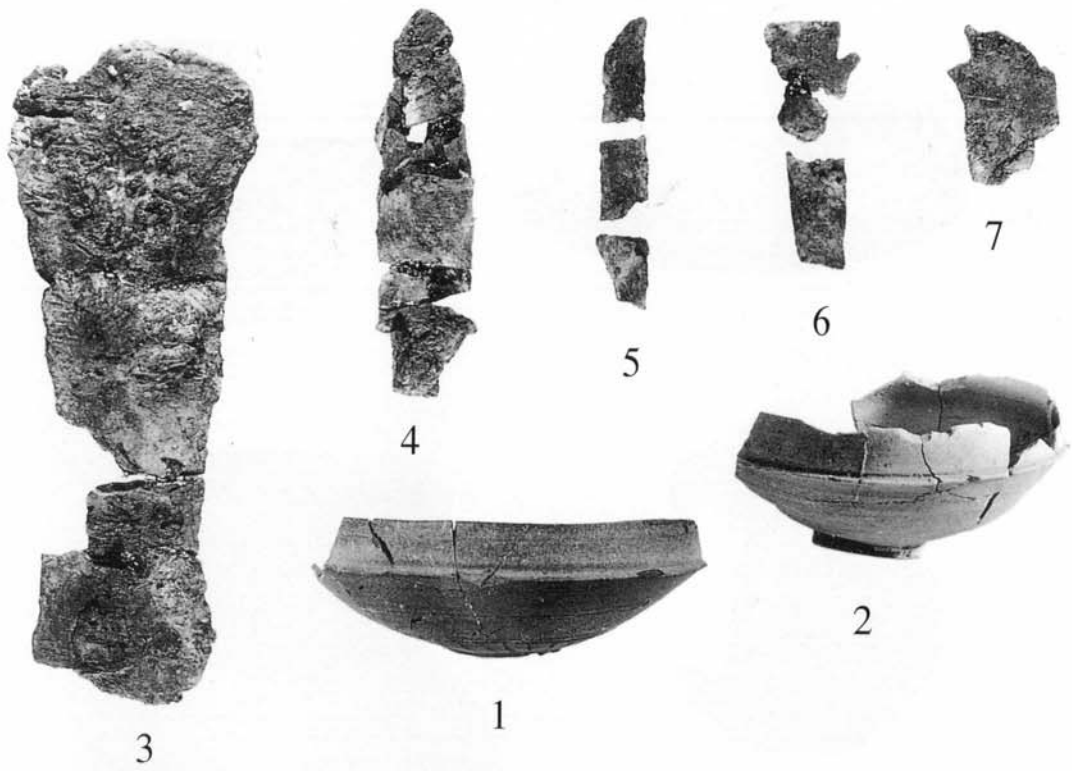
圖版 10. 8號墳 全景(1), 遺物出土狀態(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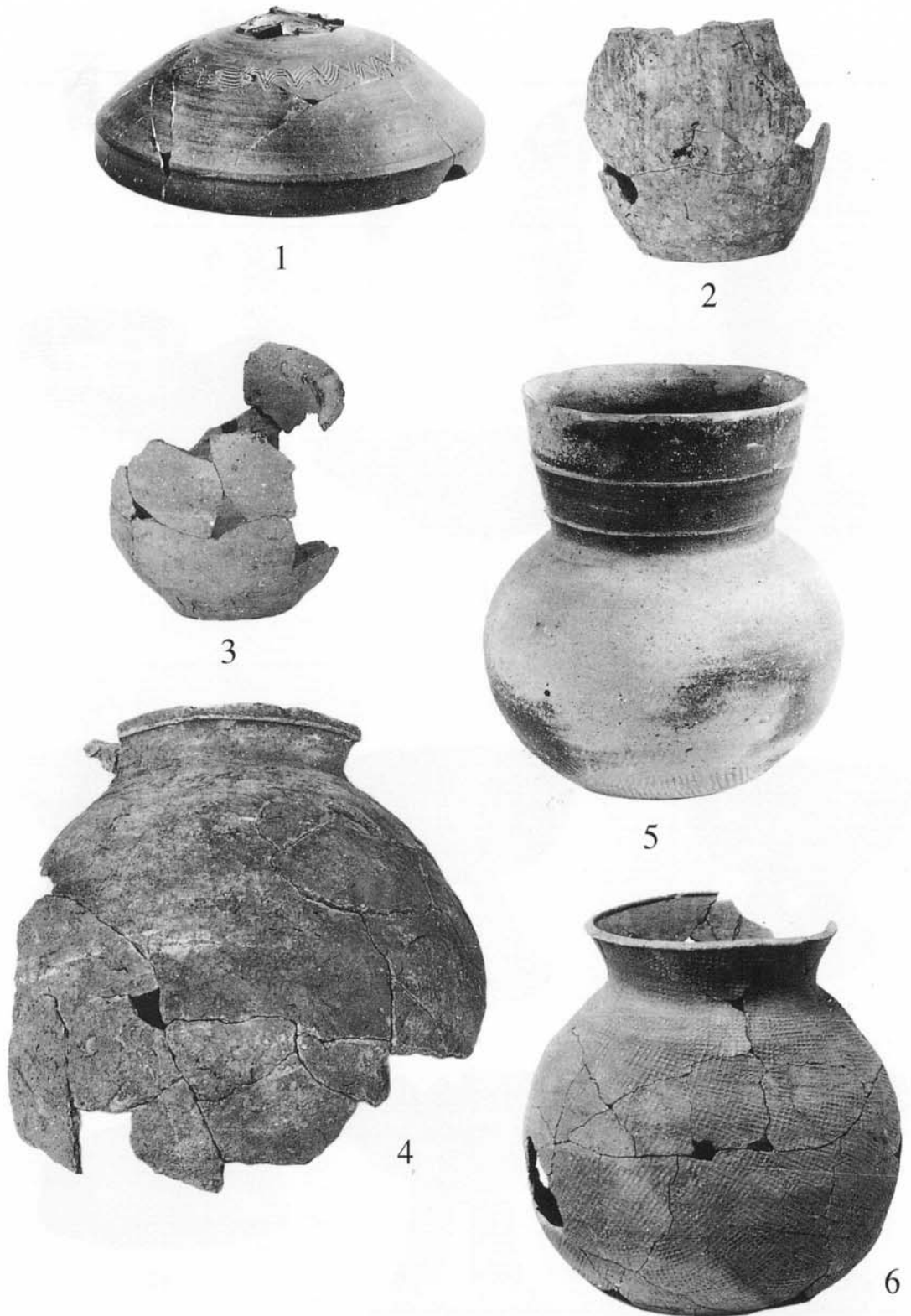
圖版 11. 9號墳 全景(1), 遺物出土狀態(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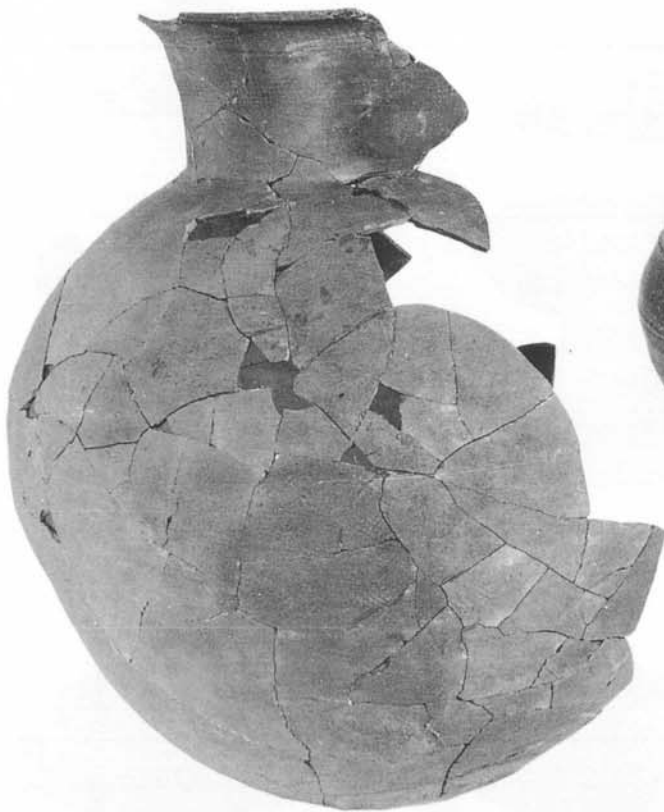
圖版 12. 3號墳 出土遺物(1, 교란 : 2~6)



圖版 13. 3號墳 出土遺物(3~7, 교란 : 1, 2), 4號墳 出土遺物(8, 교란 : 9~13)



圖版 14. 4號墳 出土遺物(2~6, 교란 : 1)



1



2



3



4



5



6



7



8



9



10



11

圖版 15. 4號墳 出土遺物(1~11)



圖版 16. 4號墳 出土遺物(1), 5號墳 出土遺物(2~7)





1

2

3



4



5

圖版 17. 5號墳 出土遺物(1~5)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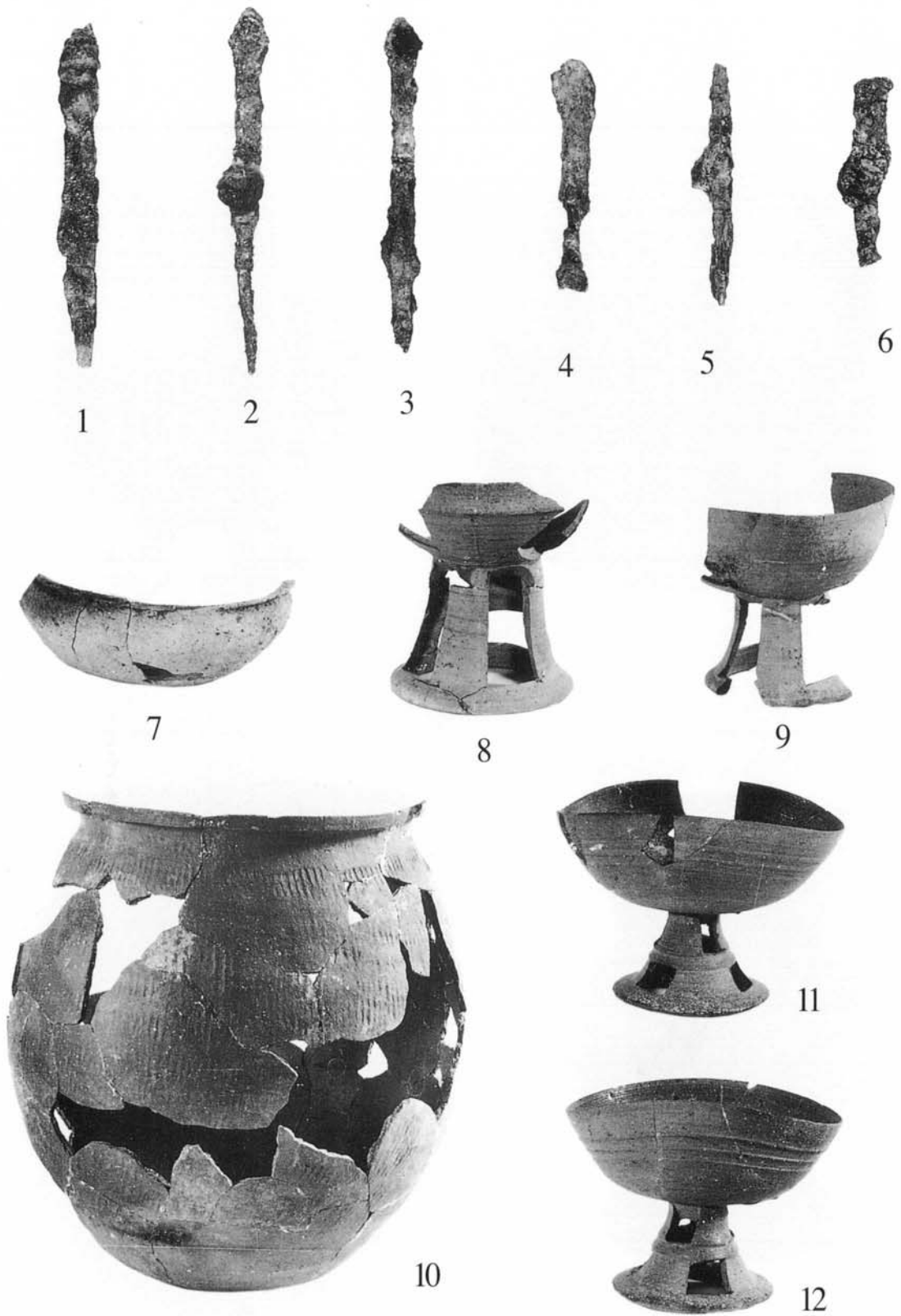


3



4

圖版 18. 5號墳 出土遺物(1~4)



圖版 19. 5號墳 出土遺物(1, 3, 5, 6, 교란 : 2, 3), 6號墳 出土遺物(7), 7號墳 出土遺物(10, 11, 교란 : 8, 9, 12)



1



2



3



4

圖版 20. 7號墳 出土遺物(1, 교란 : 2~4)



1



2



3



4

圖版 21. 8號墳 出土遺物(1~4)



1

2



4

3



6

5

圖版 22. 9號墳 出土遺物(1~3, 6, 교란 : 4, 5)



1



2



3



4



5



6

圖版 23. 9號墳 出土遺物(1, 교란 : 2~6)



1



2



3



4

圖版 24. 9號墳 出土遺物(1~3, 교란 : 4)





1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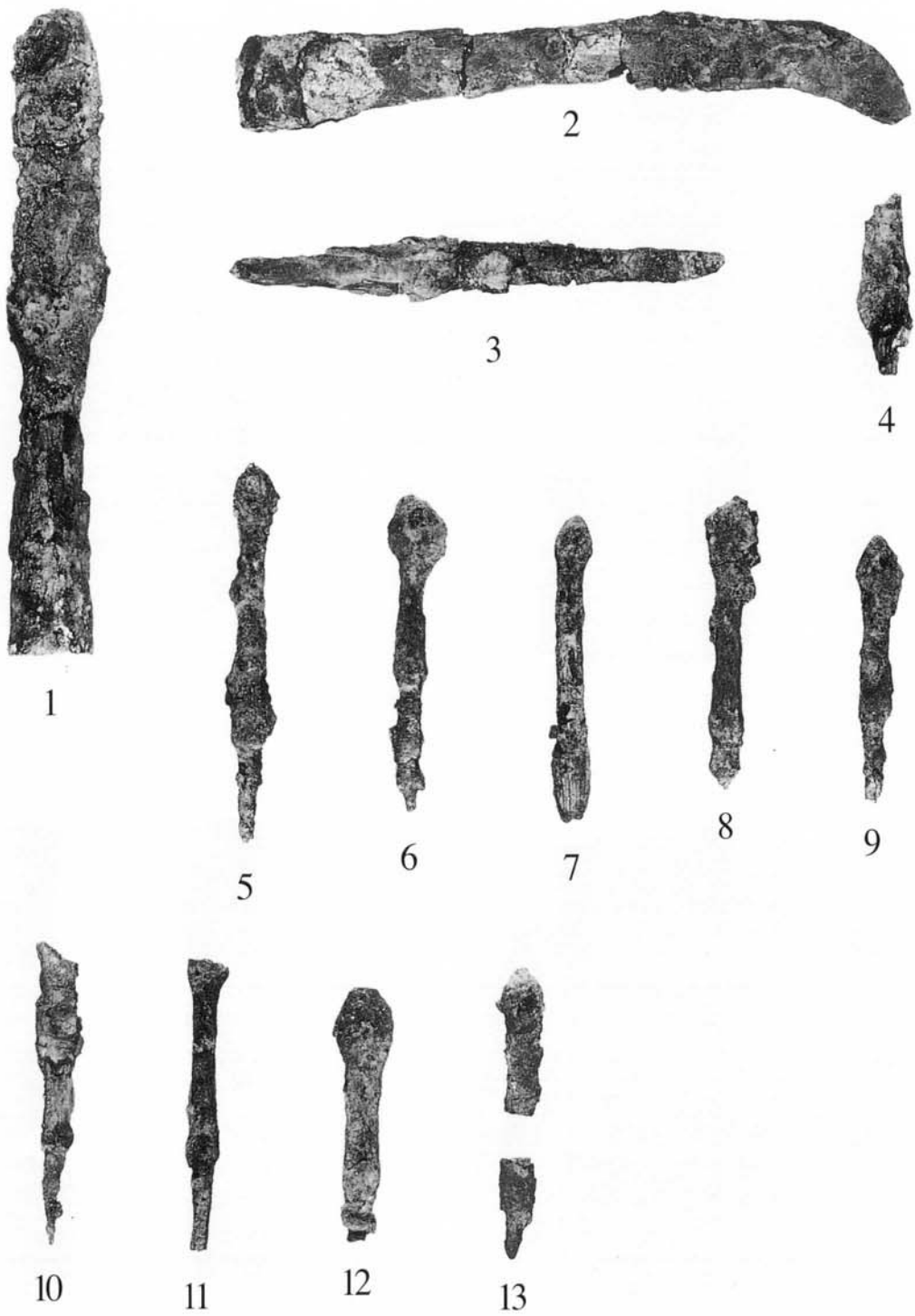


4



5

圖版 25. 9號墳 出土遺物(1~5)



圖版 26. 9號墳 出土遺物(1~13)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輯

---

## 蔚山中垓古墳群

1997年 12月 20日 印刷

199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 蔚山大學校博物館

發行 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 052-259-2634

印刷 金양문화프로세스(051-246-6734)

---